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宋在雲
印刷人 李撰行
主幹 林英正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長 盧建煥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㉗8131~9
本社直通 ㉗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714
경북 경주시석장동707
전화교환 2—0131~6
본사직통 41—4132
每週 水曜日 發行

今週一言

만 권의 책을 읽어 중얼거리며 옛날을 논하고 또 지금을 논하지만 학문을 쌓음에는 다른 방법 있는 것 아니니 다만 내 마음을 거두어 들이면 되리라.

〈清虛堂集〉

회장선출-회칙개정안 통과

전체교수회 지난20일 교수2백여명 참가

신임회장에 金鎔貞교수

중앙도서관서 「5개특별위」설치키로

「89학년도 제1학기 전체교수회 총회」가 지난20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3층에서 서울·경주 양캠퍼스의 교수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체교수회 회칙개정과 학칙개정, 그리고 교수회장 선출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는 金鎔貞(철학)교수를 회장으로, 金翔圭(건축공학)교수를 서울캠퍼스부회장으로 선출한뒤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전9시 전체정족수 3백58명(서울 2백30, 경주 1백28명)중 2백9명이 참석, 吳亨根(불교)교수의 경과보고후 崔圭喆(기초과정)교수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장선출에 들어갔다.

보직교수의 선거권자제양해후 회칙14조1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김용정교수 68표, 오형근교수 22표, 朱宗桓(농업경제)·裵鍾根(교육)교수가 각각12표를 얻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각각 후보로 선출, 경합끝에 1백26표대44표로 김용정교수가 선출됐다.

이어 김용정교수를 의장으로 한 회칙개정안과 학칙개정안 심의에서는 주종환교수의 제안으로 「학생처벌권의 대의원회의결을통한 단과대교수회 상정」으로 고쳐졌고 대부분이 회칙개정소위 안대로 가결됐다.

그 주요내용은 교수회칙16조에 부총장후보의 비밀복수추천과 33조의 5개특별위원회(규정심의위원회, 3자연석회의, 학칙개정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동국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등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교수회 「임시총회」는 지난13일오후 2시 교수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강당(Ⅱ)에서 열렸다.

교수회칙개정과 부총장후보선출에 관한 규정안 확정을 위한 이번 총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교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교수회칙 개정안」, 「부총장 후보선출안」, 「학칙개정안」등을 결정했다.

◇지난20일 중앙도서관서 전체교수총회가 열렸다.

신입생 적응지도 실시

89학년도 신입생 적응지도가 예년과달리 학교측과 총학생회 주최로 나뉘어 오는23, 24일 두차례에 걸쳐 단대별로 교내일원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와같이 주최가 둘로나뉘어실시되는것은 예년에 실시하던 적응지도가 실질적인 대학생활에 관한것 보다는 주로 형식적인것에 그쳐 이를 보완키위해 학교와 총학측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이에 첫날인 23일은전반적인 학교소개및 교무·병사관계등의 설명이 있게된다.

둘째날인 24일 오후1시에는 야간강좌를 제외한 전체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총학생회주최로 적응지도가 있게되는데 총학생회장 최재성(불교·4)君의 「학생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승민(영문퇴학·3)학자투위원장의 「학원자주화투쟁」, 여익구(사학·67)동문의 「올바른 대학생활」등에 대한 강연회와 문화패공연, 영화 「오-꿈의나라」관람등을 갖는다.

卒業式辭

항상 정의의 편에 서길

본인은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년동안 젊은 캠퍼스를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심어두고 民族의 동량으로서 새 출발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게되니 더욱 마음 든든합니다.

아울러, 諸君들의 기나긴 장도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기 위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黃彰經이사장 스님과 여러 임원님,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동문여러분, 前任 總長님, 각기관장님, 그리고 학부모및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卒業生 여러분!

인류문화는 理智를 개발하는 지혜로운 者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理智는 無碍융통한 순리적 세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우주는 一毫의 오차도 없이 생동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法理가 인간의 삶을 調和하고 있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인간은 이러한 진리에 순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순리의 緣起를 발견하지 못하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은 民主長江의 큰 흐름속에서 미증유의 시련을 겪고있고 또 지혜롭게 극복발전시키고자 절제와 인내도 잊지않고 있읍니다. 그속에서 우리 東國大學校도 도도하게 흐르는 自主東國의 물줄기를 타고 東國中興과 世界속의 東國을 향해 敎·職員과 學生은 물론 財團과 모든 同門이 혼연일체가 되어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끝없는 努力을 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卒業生 여러분!

세상은 나만이 옳다는 주장으로 해결되는것은 없읍니다. 무아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역사행위의 선두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아적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독선과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무명의 자아를 진아의 생명체로 환원시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희망으로 결속시켜야합니다.

또한 우주는 광활한 법계입니다. 이 우주는 무아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왕래할수있읍니다. 독선과 편견이 없는 무아의 광명속에서 무애자재한 용심으로 평화롭고 희망이넘치는사회를 건설해야할것입니다.

親愛하는 卒業生 여러분!

人間의 존엄성이 확보되고 社會正義가 실현되는 곳이 민주사회입니다. 의무를 先行하는 사람이 되었을때 權利의 領域 또한 확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어려운 파도가 닥아 오더라도 항상 正義의 편에 서서 굳굳하게 智慧로히 극복하여 줄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永遠한 母校가 된 東國은 80餘星霜의 年輪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민족의 횃불로서 이 時代의 良心과 지성을 간직하고 우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萬里長天을 날으는 대붕처럼 패기있고 당당한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하길 바라면서 惜別의 所懷를 가름합니다.

總長 李智冠

오는25일 학위수여식 거행

석·박사 2백38명등 총3천7백17명 배출

1988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 25일(경주 27일) 오전 11시 李智冠총장, 黃彰經이사장·鄭在哲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만해광장에서 거행된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식사, 이사장고사, 동창회장 축사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학사3천4백79名(경주 1천2백9명 포함) 석사 2백22名, 박사 16명등 총 3천7백17명의 개교이래 가장 많은 학위수여자를 배출한다.

영예의 전체수석은 평점 4·5만점중 4·42의 하석모(법정대·법학과)군이, 서울캠퍼스 수석에는 평점 4·35의 정영수(문과대·열문과)양이 차지했다. 또 차석에는 김수경(경상대 회계학과 4·34)양과 김경희(인문대 일문과 4·27)양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박사학위 취득자및 각 단대별 수석졸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 취득자(괄호안은 학위명)

▲정후수(문학) ▲정태헌(문학) ▲박협규(교육학) ▲정래현(경제학) ▲최문경(경영학) ▲송기범(경영학) ▲이경행(이학) ▲전우방(농학) ▲김정수(이학) ▲김명해(이학) ▲한상숙(공학) ▲김일진(공학) ▲김명생(공학) ▲양영선(공학) ▲장영상(공학) ▲서병숙(이학)

◇각 단대별 수석졸업자

▲불교대=김경순(불교4·30) ▲문과대=임종길(일문4·18) ▲이과대=민현주(물리, 4·27) ▲법과대=김인범(법, 4·23) ▲사회대=인성환(정외, 4·15) ▲경상대=최영진(회계, 4·09) ▲농과대=박태선(농, 4·18) ▲공과대=허태행(토목공 4·01) ▲사범대=김경희(가교, 4·03) ▲예술대=송기서(연영, 3·96) ▲야간강좌=이용선(영문4·30) ▲인문대=김형준(국문4·11) ▲자연대=유민재(수교4·02) ▲법정대=송익동(법3·96) ▲상경대=황현수(무역4·15) ▲한의대=배옥순(한의4·05)

법당·여학생기숙사 기공

16억여원투입 90년 완공

경주

경주캠퍼스 정각원과 여학생기숙사 기공식을 지난달 10일 오전11시 李智冠총장, 黃彰經이사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공사부지에서 가져 현재 부지정지작업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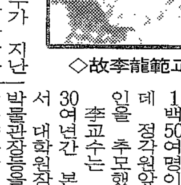
지난해 6월 학·민·투 합의사항이기도한 정각원, 여학생기숙사 건립은 연못뒤와 현기숙사 윗편에 각각 부지 선정됐으며, 모두 오는 90년 2월에 완공된다.

신축되는 정각원은 총공사비 3억2천여만원을들여 연건평 1백94평,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식 건물에 기와지붕을 하게되며 법당1실, 원장실·사무실 각1실, 분임토의실4실, 선원(禪院) 1실등으로 구성되는데 총공사비 전액을 교비지원을 받지않고 李총장을 비롯한 불교신자들의 시주로 마련했다.

또한 여학생기숙사는 총공사비 12억6천9백여만원을들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식의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1천2백20여평으로 1실에 3인씩 총3백54명 수용능력의 1백18실과 식당및 주방, 휴게실, 상담실, 사감실등의 시설을 갖추게되는데 李총장은 여기에도 약정금액을 시주했다.

李龍範교수 별세

지난31일 정각원앞서 路祭



◇故李龍範교수

醉鷺 李龍範교수가 지난 29일 오전 10시 숙환으로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68세.

李교수의 路祭가 지난 31일 오전 10시30분 유족들과 李智冠총장, 黃彰經이사장을 비롯한 교수·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각원앞에서 열려 고인을 추모했다.

李교수는 지난 58년부터 30여년간 본교에 재직하면서 대학원장, 문리대학장, 박물관장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동양사학회장, 역사학회장, 진단학회원등 사학계의 요직도 맡았었다. 저서로는 「中世滿洲·蒙古史의 研究」, 「古代의 滿洲관계」등이 있다.

등록금 동결 결의대회

「민주적 총장선출」쟁취도

지난 13일 열려

「등록금동결및민주적총장선거제도쟁취를위한 동악인 결의대회」가 지난13일 오후 1시 학생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신임사회과학대학생회장 박영규(사회3)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장 최재성(불교4·퇴학)군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2학기 투쟁의 결과는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 89학년도 투쟁방향과 당면과제에 대해 △물적구조의 혁신화(등록금동결투쟁) △민주총선출문제 △교과과정에 따른 신임교수영입문제등 현안3대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학자투위원장 이승민(영문3·퇴학)군은 학교측과의 1·2차회의결과보고를 통해 『예산확대요인과 등록금인상산출근거제시·재단의 전입금확보에 관한 대안등을 중점논의했으나, 학교측은 확고한 대안없이 등록금인상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군은 『재단이 조속히 수익사업체제로 전환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교수동정

▲權寄悰(불교학과)=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불교유적답사차 네팔 인도방문.

▲韓泰植(선학과)=지난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일본불교대학 철학박사 학위수여식 참석 및 학술자료수집차 渡日.

▲金思燁(일어일문학과 대우교수)=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학술연구자료수집차 일본 방문.

▲鄭柄朝(국민윤리학과)=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1차 학술조사차 인도방문.

▲朴榮吉(법학과)=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연구자료수집차 일본 방문.

▲張源宗(경제학과)=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일본법정대학 경제연구소 설립 1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東아시아 경제의 다이나믹스와 상호의존」이라는 주제를 발표.

▲尹鍾安(회계학과)=지난해 11월 「한국회계학회」부장에 선임.

▲金泰弘(무역학과)=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산뚱시 초청으로 「동북아경제협력방안연구토론회」참가차 중국으로 출국.

▲洪潤植(국사교육과)=지난달 20일부터 이달10일까지 하와이 「관음사」와 일본불교대학 초청으로 한국불교미술에 관한 강연차 미국 및 일본 방문.

▲林英正(국사교육과)=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전국대학신문주간협의회」의 일원으로 국제학술교류 및 한·중 대학협력을 위한 북경대학 방문차 중국 방문.

▲金英吉(경주·불교학과)=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문교부문화협정에 의한 파견교수로 인도문화소개 및 자료수집차 인도로 出國.

보리수

생명의 씨앗

봄의 기운이 완연하다. 입춘을 지나서인가. 계절은 어김없이 제몫을 찾아 나선다. 근 백년만에 설을 되찾고, 또 대보름을 맞았다. 대보름을 지나면 모든 사람은 긴 겨울잠을 깨고 들녁으로 나간다.

그러나 현대는 산업문명시대이므로 이 보름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지만…. 농경시대에는 이날을 기점으로하여 농사일이 시작된다.

농사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첫째는 갈이하는 논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논밭보다 더 끽긴한 것은 씨앗이 있어야 한다. 씨앗이 있으면 밭뙈기를 일구워 농사를 할 수 있다. 씨앗은 좋은것이어야 한다. 씨앗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밭에 심어도 생출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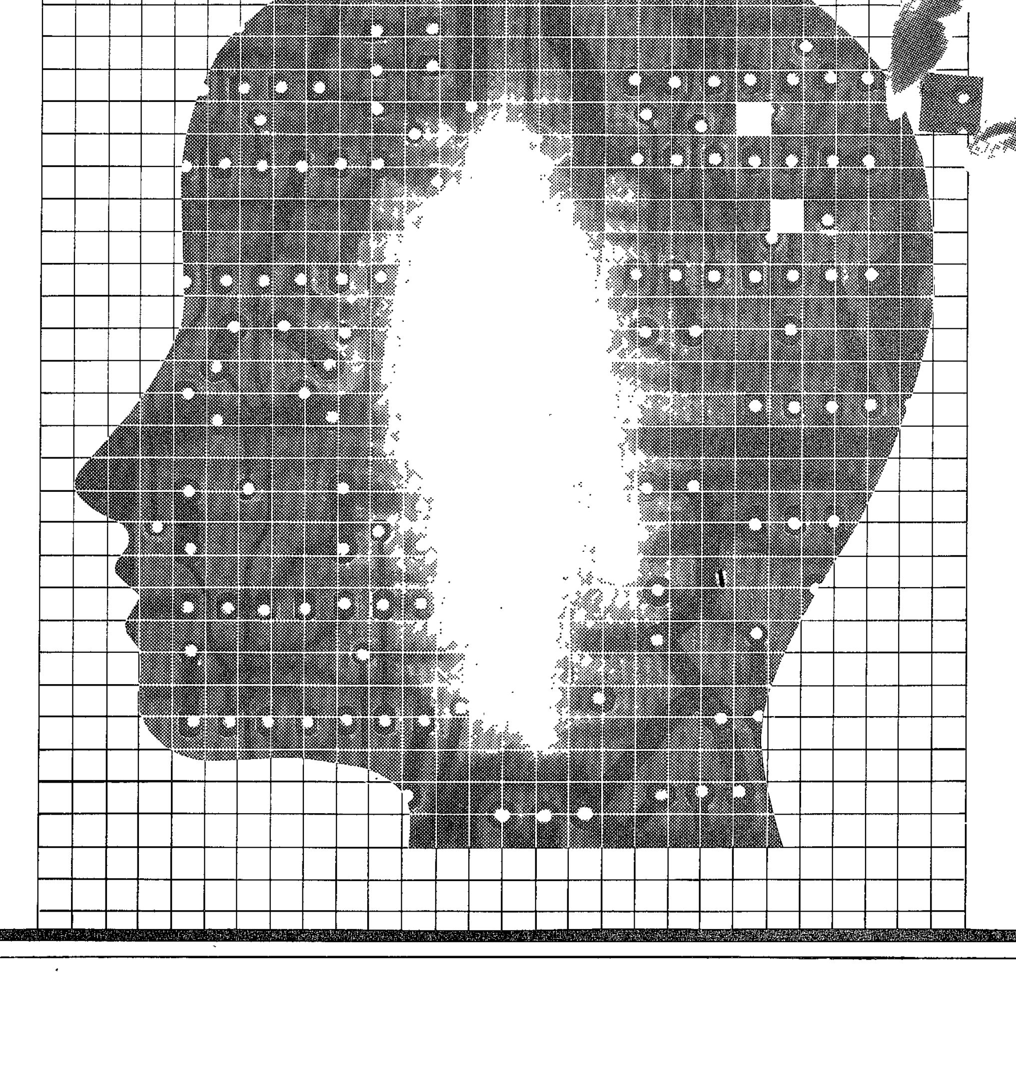
일찌기 『열반경』 「보살품」에서 부처님께서 설파하셨다. 『오직 익찬티카들만은 보리심을 낼수 없다. 이를테면 불에 탄 씨앗이 몇만번 단비를 만난다해도 끝내 싹을 틔울수 없는것과 같으니라』고. 정말 불에 탄 씨앗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씨앗속에 생명의 눈이 있어야 한다. 생명의 눈이 곪아버리거나 썩어버리면 싹이 돋울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타버렸다면…. 그러므로 농사짓는 사람은 씨갈무리에 온 힘을 쓴다. 좋은 씨앗을 골라 잘 저장하였다가 봄날이 오면 또 갈무리된 씨앗을 다시 골라서 밭에 뿌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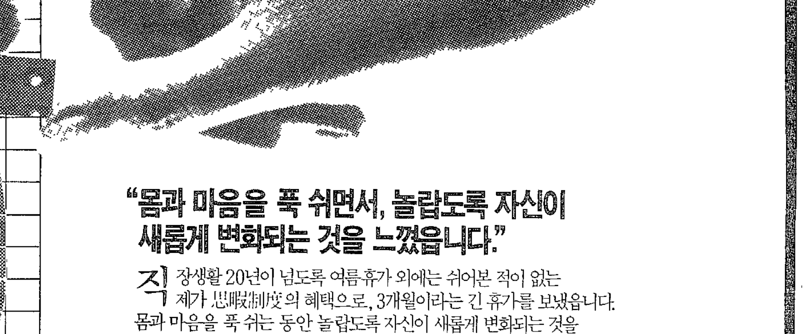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씨앗이 한번 타버리며 「斷善根」이 되었다하더라도 회심하면 「生善根」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식물적 씨앗과는 판이하다. 살다가 보면 斷滅된 善業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단멸되었다고 영원히 악행으로 가는것이 아니다. 저 「익찬티카」도 개심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마음의 조화이다. 우리는 마음의 조화를 믿어야한다.

농부가 수만가지 씨앗속에서 좋은 씨앗을 골라 농사짓는것과 같이 우리도 수만가지 마음속에서 善行을 골라서 봄날에 내어 놓아야 한다. 화창한 봄날 활부지가 되면 안된다. 봄은 봄답게 꽃이 피고 새잎이 우거지고 들판에 파란생명이 솟아올라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단비를 내리는 天心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흥건하게 적셔지면 자연히 부드러운 대화가, 인사가 앞서고 있을것이다.

睦楨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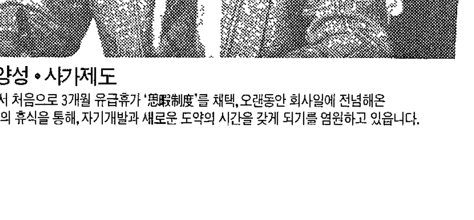




"몸과 마음을 푹 쉬면서, 놀랍도록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느꼈읍니다."

직장생활 20년이 넘도록 여름휴가 외에는 쉬어본 적이 없는 제가 思暇制度의 혜택으로, 3개월이라는 긴 휴가를 보냈읍니다. 몸과 마음을 푹 쉬는 동안 놀랍도록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이런 좋은 제도를 채택한 회사에 무한한 감사를 했읍니다. 회사업무처리에 개선할점, 자기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새로운 구상 등… 수많은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나만이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로부터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읍니다.

常務理事 이 병 상



코오롱의 인재양성 • 사가제도

코오롱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개월 유급휴가 '思暇制度'를 채택, 오랜동안 회사일에 전념해온 임원진들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자기개발과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읍니다.

社說

졸업생이 갈곳이 없다
—서글픈 졸업식이 돼서야

88학년도의 졸업날(오는25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먼저 졸업생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은 입학으로 시작되어 졸업으로 끝난다.

그렇게 학업이 끝난다는 증표로 졸업장과 학사학위가 주어진다. 그러한 대학생활의 기간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한 두루 아는바와 같이 4년이다. 그러므로 졸업은 4년동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얻은 빛나는 결실이 아닐수 없다. 마땅히 뜨거운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다.

더구나 대학생의 졸업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지도층을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교육을 받아서 졸업과함께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분들의 졸업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지도적 역량을 빛내주는 일로 직결됨을 뜻한다. 여러분들의 졸업은 따라서 졸업하는 당사자나 대학차원의 기쁨에만 그치지않고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경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의 현실적 상황은 대학 졸업자들의 그 새로운 에너지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것을 스스로의 발전동력으로 활용할수 있는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수용태세의 미비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난이다. 그것은 아까운 재능의 사장(死藏)을 강요하는일이며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 즉 대학졸업생들의 취업확대를 위한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 못지않게 개인적 노력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명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졸업생들이 이제는 매사를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야 할 성인임을 생각할 때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은 무게를 더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 옛말은 우리가 오늘 다시금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금언이다.

끊임없이 스스로 돕는 사람에겐 발전적 인생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지난 4년동안「형설의 공」을 쌓은 것도 실은 그렇게 발전적 인생을 건설해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렇다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 아닌가. 서구인들이 졸업이란 말속에 시작이란 뜻을 함축시킨 까닭도 거기 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졸업생들의 앞날에 영광있으라!

「교수회」새출발을 기대한다
—교수회 정기총회를 보고

전동국인의 대학발전과 학원의 민주적발전을 담당할 전체 교수회의 총회가 지난20일 열려 신임 교수회장 선출과 회칙개정등을 처리했다.

학원자주화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지난해의 진통을 겪고 재출범의 의의를 갖고있는 이번 총회는 올해도 학생등 학원 개별주체들의 학원의 민주화와 자주화가 고양되리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있다. 2차례의 학자투 합의사항 이행이 대학의 순조로운 향진을 약속한다고 할때 더욱 그렇다.

이번 총회의 주요 회칙개정을 보면 교수·학생·학교당국등이 참여하는 학칙개정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삼자연석회의, 규정심의위원회, 동국발전위원회등을 회칙에 수용했고 대학발전계획, 대학재정, 교원인사, 총장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한 복수추천, 경주캠퍼스 자율성 신장·학생처벌등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단과대 교수회에서 갖도록 하는등 그 권한을 확대하거나 재천명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교권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58%에 불과한 저조한 참여율은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저조한 참여율이 곧바로 교수회의 파행적 음모적 운영이나 신뢰성의 실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볼때 회의장에서의 잦은 이석으로 산만한 진행, 논의의 내밀성 부족등은 우려할 만하다. 대학기능의 마비와 사제 교수님들간의 불신을 드리웠던 학자투 경과를 유의할때 이런 수동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학원자주화의 시대적 당위성을 전근대적 사고와 교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교수님들의 학원자주 관점의 이해가 폭넓게 공유되지 못한점, 기여도가 미비한 재단의 활성화 방안이나 제역할을 촉구하는 결의및 의견 제시가 없었던 점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수회 총회는 보직교수의 발언권및 투표권을 제한해 학교당국으로부터 교수회의 자율성을 보장받을수 있는 틀을 마련했으며 회의 장소를 중앙도서관에서 치뤄 호텔등에서 가졌던 때보다 수천만원의 경비를 절감한 것은 교수회가 그 위상을 바로 세워가는 증거라고 볼때 교수회의 장래와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게한다.

아무쪼록 교수회의 새로운 출발이 학원의 민주성과 자주화를 바로 세워 전동국인의 신뢰와 격려속에 사업에 추진력을 갖고 동국중흥에의 커다란 동력이 되어줄것을 당부한다.

時事論壇

중간평가로 정권신임 물어야
특검제, 삼권분립완성의 의미
아직도 공권력의 횡포 난무해

尹 泳 五
<국민대교수·정치학>

「모든사람은 法앞에서 평등하다」는 法治主義의 확립과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해서도 5共비리는 제대로 처리되어야한다. 5共비리의 미흡한 해결과 법의 선별적 적용으로 오늘날 法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공권력을 부당한 압력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법이 무시되고 공권력이 도전받는것은 민생치안을 위협하게 됨은 물론 안정속에서 개혁과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국민의 노력에 장애가 되고있음을 주시해야할것이다.

5共非理는 수많은 여러가지의 非理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기도 수월치 않다.

첫째, 정권수립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전개한 시민을 대량 살상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군사쿠데타에 의한 비합법적인 군사정권을 창출한 일.

둘째, 정권유지과정에서 고문과 물리적 탄압에 의존하여 정치적 반대의견과 민주운동을 핍박하여 인권과 민권을 탄압한 일.

셋째, 全前대통령내외를 포함한 친인척의 부정수단에 의한 致富, 일해재단과 새세대육영회의 어마어마한 자금조성, 대기업과 권력핵심간에 거래된 1조원에 이른다는 정치자금, 9조원을 넘나드는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의 각종 특혜와 부정을 자행한 일.

그밖에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 공무원 해직, 인사행정의 부패등 제대로 분류하기조차 어려운 비리들이 자행되었다.

우리 국민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다친 새도 치료해 주는 착한 심성을 지녔다. 그런데 오늘날 5共비리의 청산작업은 왜 쉽게 끝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5共비리가 벌어졌듯이, 청산작업도 구태의연한 방법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특히 정치가들은 한국이 직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감지하여야 한다. 지금은 과거 언느때의 한국이 아니다. 前代未聞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겪는 가운데, 근로자·농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국민의 참여와 요구는 증대일로에 있다.

종전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제방 뚫린 곳을 막는식」의정치론는 더이상 지탱해 나갈수 없다. 이제 필요한것은 주도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정치인것이다.

모처럼 마련된 청문회에서도 5共비리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氷山의 一角」만이 규명되었다.

대부분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기억이 없다」는식의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민주운동은 지역적으로 먼아프리카 어디에서 일어나든, 체제적으로 다른 공산권 어디에서 일어나든 환영해오던 터에 유독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일부지역의 문제요, 질서를 유지하려는 군부에대한 도전으로 정부여당이 아직도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이 5共청산인가? 권력의 발호를 응징하는데 우유부단한 검찰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그에따라 범법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원래 미국의「특별검사제」는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즉 행정부가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을조사할때 생길수도 있는「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3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제도상의 3권분립이 저지를 수 있는 과오를 막아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3권분립의 정신을 완성하자는 이 제도가 한국에서는 왜 3권분립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것인가?

全·崔 전직대통령도 증언해야 한다. 직접 증언없이 넘어가거나 다른방법으로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5共비리와「光州학살」은 현직대통령이란도 자율적인 입법부와 사법부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을 사안인데 퇴임대통령이 증언조차 안하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워터게이트사건」은 야당의 선거운동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도청과 그것은폐사건으로 현직대통령이 사임한 예이고 일본의 경우 록히드회사의 뇌물을 받았다 하여 다나까(田中)수상은 실각하였다.

증언을 정치적 보복논리로 회피할수도 없다. 혹자는 진실이 밝혀지면 법에의한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할수 있는 것이다.

5共에서 잘못된 일들을 시정하는 면에서 盧대통령은 과감해야한다. 양심수 석방문제를 통한 경험에서 배워야한다. 즉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아서 치른 정치적 손실이 컸는지, 석방해서 치르게된 손실이 컸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중간평가는 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해야하고 따라서 5共청산후 묻는것이 최선책이다. 5共청산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묻는경우 盧대통령으로서는 위협부담이 클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퇴를 묻는 경우 유임에 찬성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5共청산을 묶어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유임을 원하는 경우에도 5共청산의 미진함을 느끼는 국민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은 5共청산과 대통령신임을 연계시키지는 못할것으로 전망한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예상을 뒤엎고 인기있던「듀이」는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던「트루먼」에게 대통령선거에서 패하였다.

프랑스의 장군이요 제5공화국의 건설자인 드골대통령의 경우 65년에 임기 7년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68년 5월에「학생혁명」을 겪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4월에 자신이 제안한「지방제도 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임기를 3년 남겨 놓은채 사퇴하였다.

일찌기 세익스피어는 영국의 왕을 정원사에 비유하였다. 盧대통령은 이제 정원사로서 부정부패라는 5共의 토양을 바꾸고(客土), 썩은 가지를 치고 잘못 뻗은 가지를 다듬는(整枝) 역할을 해야 하겠다.

37% 밖에 득표하지 못한 여당이고 院內소수파로 전락한 여당이다. 그런 여당이 계속 분기점에서 바른 길로 들어선 역사의 행로를 식별하지 못한채 머뭇거리거나 과거를 그리워 한다면 조만간 그 안일과 復古는 또한번 낭패할 것이다.

새 역사 창조에 있어서 5共비리와 광주문제에 책임질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고 참회하는 가운데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모든 민주화운동은 질서있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추구해야 한다. 폭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외허용 조치를 보고
"윗돌빼서 아랫구멍막는 미봉책"
등록금동결투쟁의 회유책으로 볼 수 있어

권 현 미 <이부대 전산과>

지난 2월2일, 영리목적의 직업적·전문적 과외를 제외한「대학생 과외」를 시기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문교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서민층의 한숨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대학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학생 과외 알선업체가등장하기까지 했다한다.

「5·17 쿠데타」로 신군부세력이 들어선 당시 우리의 교육현실은 입시위주의 암기식 수업으로 교육현장이 메말라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교사, 학생, 학부모는 엄청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80년7월30일 이른바「국보위」(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의 해소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대학의 졸업정원제와 더불어 요란하게 추진한것이 바로「과외금지 조치」였다.

그런데 9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대학생 과외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윗돌 빼서 아랫구멍 막고 아랫돌 빼서 윗구멍 막는다」는 말이 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쓰는 말이다.

과외를 금지시켜 과열경쟁을없애려는 발상이 그 단적인 예라 할수 있다. 지난 2월초의 과외허용조치 발표는 대학이 불평등한 사회구조―현존하는 학력별 임금격차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속에서 한개인이 인간다운삶을 보장 받을수 있는 유일한통로라는 것에서 과열 입시경쟁이 유발된다는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시경쟁에 의해 나타나게된 과외를 없앰으로써 과열경쟁을 없애려 한 잘못된 문교정책을 시인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88년10월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실시된 등록금 인상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 전체적으로 50%에 불과한 낮은 취업률,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의 고조, 그리고 해마다 거듭되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현재 학원가에서 커다란 문제 부각된「등록금 동결 투쟁」등에 대한 일정 정도의 회유책으로 등장한 것이 과외의 전면허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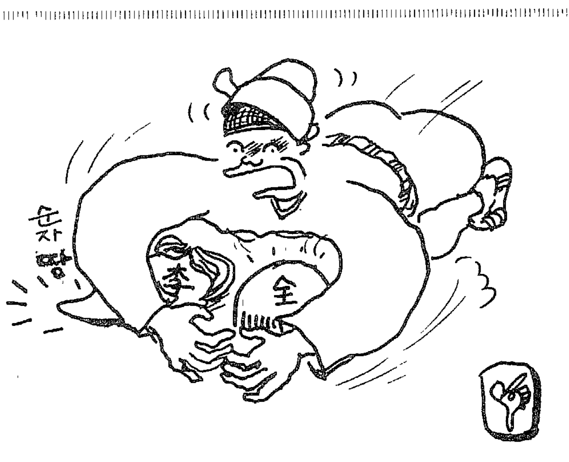
과외가 금지된 이래 대학생들의 학비나 용돈 해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물가인상을 이유로 인상된 등록금 역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과외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은 80년의 과외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제비를 모두 잡아들여 봄을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식이며「윗돌 빼서 아랫구멍막고, 아랫돌 빼서 윗구멍을 막겠다」는 피상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대학 재정문제의 해결책은 교수, 학생, 학교, 학부모등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학 경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고 대학 재정 부조리의 근원이 되다시피한 부당지출을 줄이는 등의 모색이였어야 한다.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모든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맡기는 것은 당연히「등록금 동결투쟁」을 불러오게 만드는 것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과외를 허용하는 것이 가난한 대학생의 학비와 용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학은 신분상승의 전략적「교두보」이며 입시는 개인의 운명을 판가름 짓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열경쟁은 필연적인 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 즉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은 대학 재정의 합리적 운영, 부조리의 척결등으로 장학금을 크게 늘리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는「윗돌 빼서 아랫구멍 막고 아랫돌 빼서 윗구멍 막는 식」의 피상적인 미봉책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위해 애써야 할 때이다.

東國漫評



◇야, 누구 망칠 작정이냐?

진정 동국을 사랑하는 동국인이여!

″건학이념 구현하여 동국위상 정립하자″

동국을 아끼는 7천학우 여러분!

지난 한해는 민주화의 열기와 학교 발전을 위한 진통을 함께 겪어왔읍니다. 그러나 밝은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는 가슴아픈 응어리를 안은채 신년을 맞았읍니다. 그것은 지난해 12월8일에 일어났던 동국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법당 방화라는 사건을 규명하지 못한채 이 해를 맞은 것이요, 또한 이러한 사태를 동국을 아끼는 여러분 앞에 올리게 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어났던 사실과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하여 글을 올리고 더욱 적극적인 여러분의 동국에 대한 사랑을 호소드립니다.

이땅에 동국의 역사가 열리어 오늘까지 어언 80여년, 그동안 외세의 침략과 민족분단의 뼈아픈 고통도 꿋꿋이 이겨내어 민족의 사학으로 이어온 본교가 그 성숙된 역사속에 또 가슴 아픈 흔적을 남겼읍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본교는 지난날 불교의 선각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삼보정재를 털어 불국정토의 이상을 실현하기위한 굳은 신념으로, 교육 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교정신에 입각한 중생제도와 자아 실현, 진리탐구에 건학이념을 두고 설립한 학교가 종립 동국대학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량에서 지난해 12월8일 본교에서 자행된 법당 방화 사건은 우리들이 한결같이 생각해온 종립학교로서의 정신적 지주인 우리의 혼이 방화된 것이요, 이는 동국정신을 말살하려는 획책이고 반불교적, 반동국적 음모이며, 건학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건학이념 조차 인식못한 몇몇 교수, 직원, 학생들이 성직자의 매도는 물론, 언어적 폭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동국 정신까지 말살 하려는 사태로 획책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과 지난 학원 자주화 투쟁 과정에서 우리의 법당이 방화되었을때 모든 불자들은 성전을 지키지 못한 비통으로 싸늘히 얼어붙은 잿더미 속에 무릎을 꿇고 그을려 산산히 부서진 벽돌 조각들을 움켜쥐고 울분과 참회의 오열을 말없이 삼켰읍니다. 그러나 잿더미속을 뒹굴며 흘린 뜨거운 눈물이 어찌 이 멍든 가슴까지 풀겠읍니까.

이에 불교도들은 이 방화 사건의 진상규명과 건학이념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대 화합하여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분연히 일어섰읍니다.

그동안 진상규명과 건학이념 실추에 따른 동국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백일신중 옹호도량 기도를 봉행하며 법당 방화 진상규명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에 전력하고 있읍니다.

동국을 사랑하는 7천학우 여러분!

동국대학교는 불교와 민족의 현재이자 미래인 것입니다. 동국은 부처님 진리의 법륜이 힘차게 구를 때만이 동국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륜이 멈추어진 동국은 더 이상 동국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다 진실한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동국의 미래를 걱정할때 입니다.

반불교적, 반동국적 세력을 척결하고 이 사건과 연루된 한치의 비리도 용납될 수없음을 밝히며, 우리 진상조사위원회는 단호히 규명해 나갈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국의 정신을 정립하고 건학이념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7천학우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방화사건은 반드시 규명되어져 이에 관련된 동국의 정신을 좀먹는 모든 비리들을 단호히 척결하지 않고는 건학이념 구현에 절대적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에 학교당국, 수사당국, 총학생회는 이러한 전체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상규명과 건학이념구현에 적극적 실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동국의 역사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인이 되도록 함께 뭉쳐 나아갑시다.

불기 2533년 2월

①동국 위상을 정립한 건학이념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의를 바랍니다.
②법당 방화범을 조속히 색출할 수 있도록 학우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의견을 고대합니다.

경주캠퍼스 법당방화진상조사위원회

경주캠퍼스 설립10주년기념 금장장학회 기금 접수 현황

<2 차접수분>

▲蔡燦鎬(총무과주임)=5만원 ▲車埈煥(경리과장)=10만원 ▲崔海邦(경리과)=3만원 ▲김시배(상경대학장)=20만원 ▲許正植(전산과교수)=7만원 ▲성일수(기숙사)=3만원 ▲朴鍾煥(총무과장)=10만원▲文在玉(인문대교학과)=3만원 ▲韓炳模(총무과)=3만원 ▲김종규(총무과)=3만원 ▲朴海龜(관재과)=3만원▲辛台容(복지주임)=5만원 ▲金英洙(총무과)=3만원 ▲權大興(의과대교학과)=3만원 ▲李康錫(열람과주임)=5만원 ▲陸星洙(교무과)=3만원▲金鍾震(교무과)=3만원 ▲李振亨(교무과)=3만원▲유인수(교무과)=3만원 ▲鄭晟鎬(교무주임)=5만원▲金雄基(관재주임)=5만원▲李鎭熙(관재과)=3만원 ▲吳鋼熙(전자계산소)=3만원 ▲金盈忍(한방병원서무주임)=5만원 ▲김한경(자연대교학과)=3만원 ▲李相炳(관재과)=3만원 ▲黃尙周(미술과교수)=10만원 ▲김운락(학적과)=3만원 ▲鄭文漢(학적과)=3만원 ▲權純正(학적과)=3만원 ▲李鍾錫(열람과장)=10만원 ▲金炅浩(관재과)=3만원 ▲李相淇(한의대교학과)=3만원▲이종로(행정대학원 행정관리과87년졸업)=10만원

2 차분합계 1 백70만원

◇총계=7백14만 8천4백90원

경주캠퍼스 학생처 장학과

전화(0561)2—0131~9 交 228, 229

공 고

1989학년도 제1학기 복학 및 재입학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신청기간 : 1989년2월23일(목) ~2월28일(화)
2. 접 수 처 : 학 적 과
3. 구비서류 :
   가. 일반복학자및 재입학자 : 복학 및 재입학원서 1부
   나. 군복학자 : 복학원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다. 전역예정자 :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 각 1부
4. 자 격
   가) 복학 : 학사내규 4—(2)—1), 2)항에 의거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군입영 휴학자로서 개학일로부터 30일이내(89. 3. 31)에 전역할 자. 다만 전역예정일까지 전역하지 못한 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
   나) 재입학 : 1) 학칙 제53조 ①, ③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적되었던 동일학과에 여석이 있을때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8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0년이내에 결원에 관계없이 재입학을 허가한다.(재입학허용기간은 군복무기간도 포함)

교 무 처 장

지방자치제 실시의 문제점과 과제

지방자치는 民主化의 불가결 요소

崔 峣 煥

<사회대대우교수·의회제도>

○…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그 시행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이에 本面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앞둔 현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문제점을 살펴보고 극복해야할 과제를 점검하고자 이글을 싣는다。 <편집자註>…○

지방의회선거 전면 동시 실시해야

地自制法의 정치적 악용은 곤란

Ⅰ、序論

近30년동안이나 중단되었던 地方自治制實施가 작년 4월6일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同年 5월7일에는 그 施行令까지 공포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앞에두고 있다。그러나 이 공포된 改正法律은 施行해 보지도 못하고 再改正될 가능성이 짙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첫째로、이 지방자치법은 작년 3월초 제12대국회가그 막을 내리려면 촉박한 시기에 與野國會議員들이 자기들의 당락이걸린 선거구문제에만 정신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아니라 法案심사도 못한 상황에서 무수정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補完實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이다。

둘째는、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무엇보다도「국민이 무엇을 원하고있는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파악하고 그 염원을 구체적이고 체계있게 집대성하여그것을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게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以下에서 필자는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까지 부각되고 있는 쟁점들을 몇가지로 묶어서 그것에 대한 拙見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Ⅱ、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문제 (즉 기초단위를 市、郡、區로 할 것이냐、市、邑、面으로 할 것이냐)

改正地方自治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大別하여 ①특별시와 직할시및 道、②市、郡및區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1961년까지 不完全하나마 실시되었던 市、邑、面制를 폐지하고 그 기초단위를、市、郡、區로 改正한 것이다。

폐지한 이유로서는 市·邑·面의 경우는 주민간의 반목과 대립、재정의 빈약등을 들고있고 특별시、직할시의 區의경우는 外國의 例와 人口의 過多등을 들고있다。그러나 이같은 이유는 다음과같은 점에서 타당치 않다고 본다。

첫째、邑·面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재정적자립도가 낮은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보조없이 유지될수 있는 자치단체는 과연 얼마나될것인가를 생각할때 거의대부분이 국고보조에 의존하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혹자는 우리나라에는 읍·면의 수가 너무 많기때문에 시·군을 자치단체의 기초단위로 해야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일본 (3천여개) 서독 (7천5백여개) 프랑스 (3천6백여개) 미국 (3만7천여개) 등과 비교한다면 그수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둘째、지방자치구역은 원래 그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다。외국의 경우 서독의 Gemeinde (우리나라의 읍·면)가 평균인구 2천명、프랑스의 Commune은 평균인구 1천5백명、일본의 町村은 평균인구 1만명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의 읍·면의 평균인구약 1만명은 지방자치의 기초단위로서 알맞은 것이라 하겠다。

세째、市는 고사하고 郡의 경우만 보더라도 各郡은 평균면적이 6백64·7㎢인데다가 평균 10·5개의 邑·面이 있고 各 邑·面에는 평균 24개의 里가 있기 때문에 郡은 약 2백40여개의 里가 모여서 이것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제3공화국이후 형식상 郡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위로 했을때에도、읍·면사무소를 없애지 못했던 것은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군의 행정을 수행해나갈수 없을만큼 군이 방대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네째、구를 특별시와 직할시의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한것도 인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인 근거에 의하여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근거 없이 여러개의 구로 나눠 (서울의 경우 22개구)이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위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뿐만아니라 최근에는「서울分割論」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 아니면 準自治區로 하는 것이라면 이해할수 있어도 서울이라는 기초자치단체를 여러 區로 나누어 이것을 현행 市·郡과 똑같이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이는 서울을 분산 분해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다。

2、地方自治團體別 議會의 構成時期問題

改正自治法附則 (제2조)을 보면 市·郡및 自治區의 지방의회는 이법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구성하되 특별시、직할시、道의 의회는 시군자치구의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성한다고 규정하고있다。이것은 소위 지방자치의 실시를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는 좋게말하면 지방자치의 전면적실시를 우려하거나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전면적실시를 반대하는 것이라하겠다。

회고하건데 1952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을때는 6·25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또 당시의 民度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전투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각급지방의회의 선거를 거의 같은날 같은시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이유를 이해할수가 없다。

특히 1988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관한 내무부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97·3%、부산직할시82·1%、대구직할시87·4%、인천직할시 91·3%、광주직할시 56·3%를 나타내고있고、市의 경우 최하위로서 영천시 19·8%、중위로 전주시 52·2%、최고로 안산시 93·0%이고 郡의경우 최하위로 진도군 9·3%、중위로 홍성군26·9%、최고로 시흥군 84·0%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바、지방의회의 구성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市郡및 自治區부터 실시한다고 규정한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모순된 것이라하겠다。따라서 각급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야한다。

3、地方自治團體의 執行機關(長) 構成問題

改正自治法 제86조 제1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의長은 피선거권이 있는자중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면서 同法附則 (제5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長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때까지 정부에서임명한다」라고 규정한것은 이해할수 없다。이러한 경과규정을 찬동하는 측에서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한꺼번에 선거를 하게되면 지방자치의 경험부족과 선거부패、중상과 비방、흑색논리、혼란과 무질서 선거홍수등으로 지방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으니 단체장을 직선한다 하더라도 그시기를 다소 늦춰서 자치의길을 다진후에 실시한는것이 좋지않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연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결과 밖에 안되며 그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다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것이다。

첫째、1952년 자유당정권당시 처음에는 자치단체의 長을 간선제로 했던것을 4년후 직선제、열마후 다시 임명제、4·19전후 민주당정권시에는 다시 직선제로 되었으나 여하튼 당시의 빈약한 국력과 낮은 民度下에서 각급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실시한 사실이 있었고 더욱이 금일과 같이 교육수준의 향상、국민소득 1인당 거의 4천달러、교역국가로서는 세계 10~11위、민주화열망의 고조 등을 감안할때 임명제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기관의 自己選任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둘째、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국민들의 지방자치단체의長에 대한 선발방식을 보면 읍·면·동장의 경우 68·1%가 직선을희망했고、시장·군수의 경우는 49·8%、도지사、직할시、특별시장의경우는 40·7%를 직선으로 선출할것을 주장한데 반하여 중앙정부의 임명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읍·면·동장의 경우 5·6%、시장·군수의 경우 10·0%、道知事·특별시장·직할시장의 경우는 21·3%였다。그리고 지방의회에서 間選을 찬성하는 자도 상당히 있었고 읍·면·동장의 경우20·6%、시·군수의 경우 34·4%、道知事·특별시장·직할시장의 경우는 33·5%였는데、전체적으로 직선을 찬성하는 率이 제일많았고 그다음이 의회에서의 간선、중앙정부의 임명제가 제일 낮았다。

이렇게 볼때에 지방자치단체의 長을 기다릴 필요없이 직선토록 개정되어야한다。

〈表〉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주민직선	중앙정부임명	지방의회선출	모르겠다	무응답
읍·면·동장	68.1	5.6	20.6	1.4	4.3
시장, 군수	49.8	10.0	34.4	1.1	4.7
도지사, 특별시직할시장	40.7	21.3	33.5	1.8	2.4

資料：漢陽大學校 地方自治研究所, 地方自治에 關한 國民의 意識, 1988, P.224.

4、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문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의 현실을 보면 수년전 내무부산하「한국지방행정연구소」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직할시와 도의 경우 그들이 수행하고있는 업무중 54·5%와 63·2%는 각각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비율은 하급정부로 내려갈수록 더욱 높아져서 시·군의 경우는 57·7%、62·3%、75·8%로 각각 나타나고있다。

이같은 현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자기고유의 업무보다 중앙정부가 지시、명령하는 업무에 더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고유의 자치권과 재정적 자주권도 없는 중앙정부의 출장소에 불과하다하겠다。

이같은 현상을 가져오게한 원인은 말할것도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내려온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며 금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가급적 권력적 후견적 관여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지식적방식과 재정적 지원등 비권력적 관여를 원칙으로 하고 명령、지시 감독 감사 대신에 각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의사와 희망을 존중하고 기술적지도와 정보제공등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을 함양한는데 치중해야 한다。

권위주의·중앙집권주의적 사고 탈피가 自治의 전제조건

그렇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잘수행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5、地方財政의 資源確保問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각지방자치단체는 기능이 확대될것은 물론 재정수입의 확충이 불가피한 과제로 당면하게 된다。그러면 이재정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것인가?

이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다음 몇가지를 들면 ①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國稅로 징수하던 稅目을 법령개정을 통하여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법②지방세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③새로운 稅源을 개발하여 稅收를 증대시키는 방법 ④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⑤적용세율을 한정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條例로 결정하게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 등을 들수 있는데 이 지방재원의 확보문제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세계어느나라도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1백%로 되어 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며 미국·영국·일본의 경우도 우리의 약 60%를 넘지못하고 있다한다。

이렇게 볼때에 지방재정 자립도 문제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할것은 어떻게하면 지방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어느수준까지 공급할수 있겠는가를 먼저 국가적 견지에서 그 목표를 결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그것을 뒷바침하는 財源조달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국가의 사업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재원재분의 시도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Ⅲ、結論

이상에서 필자는 현지방자치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자한다。

첫째 지방자치는 민주화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이며 자치법의개정은 어떤 특정 정당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국민의 지위가 단순한 행정의 객체가 아닌 권리향유의 주체로 전환될때 주민은 주민자치의 주역이 될수있으며 지방자치의 당위성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룰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주민참가와 주민통제를 보장하는 제제도 (즉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주민의 감사청구권、주민의 의회해산청구권、주민의 의원해직청구권、주민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권 등)를 우리실정에 맞게 입법조치해야할 것이다。

네째、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하고 관료주의、중앙집권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관청의 논리에서 시민의 논리로、중앙의 논리에서 지방의 논리로 의식의 전환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다섯째、특수직을 제외한 일반직종에는 緣故地制와 생활근거지제를 활용하여 지방공무원의 生計安定및 鄕土愛를 고무시켜 자기고장의 발전에 헌신케하고 지역의 실정、특수성에 맞는 행정의 구현、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을 통한 성숙을 기해야할 것이다。

여섯째、인사행정관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을 일원화하여 한 사무실안에서 상위직은 국가공무원으로、하위직은 지방공무원으로 충원되는 2元的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사무는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토록하는 원칙을 세울 것 등이다。

변혁주체를 찾아서

"하늘의 절반을 해방시키자"

「性」과「계급」의 이중모순 작용

여성의 性상품화가 억압가중

변혁단계에 맞는 여성의 특수요구 실현할 때

1、변혁운동과 여성운동

일찌기 1920년대 일제치하에서부터 조선여성운동회、조우회 등의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발아했던 이 땅의 여성운동은 여타 사회의 모든 부문운동과 마찬가지로 분단으로 인한 단절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독재정권에 의해 장려되고 이용되면서 중상류층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는、즉 일반 여성대중들이 당하는 억압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과는 지극히 거리가 먼 어용적、봉사적 차원의「여성활동」이 여성운동으로 자리잡아왔다.

제반 사회운동이 변혁운동으로서의 목표와 위상、역할을 정립해나가 각 부분이 대중운동으로서 뿌리를 내려가는 지금、여성운동 또한 그간의 굴절과 왜곡、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80년대 들어 여성평우회、여성의 전화、민청련여성부 등 진보적 여성운동체의 결성으로 본격화 되었다.

한편、이러한 실천의 밑바닥에는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 대한 제반 논쟁들이 진행되어왔다. 서구여성해방운동의 이론들을 흡수하면서、여성문제와 운동에 대한 이론화작업은 가장 주요한 문제로「性」과「계급」의 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性」과「계급」그 어느 쪽이 더 본질적인 여성억압의 기원인가? 또는「性」과「계급」그 둘다에서 여성억압의 기원을 찾는다면 그 관계는 무엇인가? 등등 실로 다기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여기서의 관점에 따라 실천내용 또한 판이하게 달라지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연관한 문제로 (주로여성운동의 외부에서) 여성운동을 개량주의、분파주의운동이라 낙인찍는 경향도 존재했다. 이 문제들의 논점들을 개괄해보자.

「性」과「계급」의 문제에서「性」만을 강조하는 경우、결국 여성문제는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차별만의 문제로 전락하며、그 종착점은 체제내의 개량으로서、문제의 해결과는 멀어져버린다. 반면「계급」만을 여성문제의 본질로 생각할 경우「계급문제만 해결되면 여성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도식에 빠져、여성들의 구체적 고통과 요구들을 도외시해버린다. 이러한 두가지 편향 모두 性과 계급을 분리된 것으로 본데서 기인한다.

여기서 더 발전된 논의가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과 맑시즘적 여성해방론의 논쟁이다. 성과 계급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 두 시각을 거칠게나마 대별해보면、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은 계급이란 모순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한 독자적 영역으로 성모순구조를 설정한다. 즉、독자적인 성모순과 계급모순의 두 영역이 일정부분 겹쳐져 존재한다는 것이며、문제해결 역시 계급운동과는 독립적인 여성의 독자적 조직을 통해 해결한다.

반면 맑시즘적 여성해방론의 시각은 사적소유의 발생、계급제도의 발생에서 모순의 고리를 찾으며 계급이「보편」이라면 가족제도 등을「특수」측면으로서 통일적 모순고리를 설정한다. 따라서 여성특수요구의 해결은 계급운동내 여성독자부문구축으로 정리하며 일반과제와 특수과제 모두 여성운동의 몫이라 본다. 일단 현재는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성격과 관련하여 맑시즘적 여성해방론의 정당성이 실천적으로 입증되어 가고있다.

한편 여성문제 여성운동에 대해 위와같은 일반구조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는다. 즉、우리 변혁운동의 단계에 조응한 여성운동의 목표와 과제설정의 그것이다.

제국주의수탈에 의한 파행적、종속적 자본주의의 사회、따라서 민족해방이 변혁운동의 주요과제인 우리나라에서「여성의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란는 여성운동 일반의 과제를、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특수성을 규명해야하는 것이다.

자본에 의한 여성억압외에도 독재정권과 외세에 의한 여성억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자본에 의한 보편성외에도 여성의 성상품화、매춘、수입개방에서부터 분단으로 인한 질곡에 이르기까지 여성억압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특수성으로부터 현단계 여성운동의 목표는 ①여성의 광범한 변혁운동에의 참여와 각 부분운동내 여성부분구축 ②현 변혁운동단계에 맞는 여성특수요구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며、여성의 특수요구 또한 이 과정에서 조직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것이 여성운동이다.

따라서 변혁운동의 일반과제 또한 여성의 특수요구와 더불어 여성운동의 몫으로 된다.

2、여성운동 현황

각 부문 여성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편의상 여성단체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었던 87년 이전과 각 부문대중조직의 진출과 여성대중들 또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한 87년이후로 나누어 보자.

가) 87년이전— 여성단체의 성장기

앞서 밝혔듯 80년대들어 여성평우회、여성의 전화、민청련여성부등이 속속 결성되면서 근우회이래 끊겨왔던 변혁적관점에 입각한 여성운동은 그 싹을 틔웠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대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을 표방한 이들 여성단체들은 25세 여성조기정년철폐투쟁등 여성권익옹호활동、경찰에 의한 여대생추행사건등 여성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에 고발하고 응징하는데 앞장섰다. 교회여성연합회등 기독교계통의 교회여성조직들도 이에 함께 연대 투쟁을 전개했다.

이들 여성단체들의 구성원은 대부분 지식인여성들이었으며 앞서의 여성인권、여성권익옹호활동 외에 교육과 선전、그리고 기층여성、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생존권투쟁지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펼쳤다.

교육과 선전활동은 대중과의 접촉면으로서 기관지를 발간하거나 강연회、직장여성교실、특히 문화집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생존권투쟁지원은 여성단체들간의 연대、기층여성운동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태동시키는등 여성운동의 활력소가 되었다. 85년 부당해고에 반대하여 시작된 톰보이불매운동은 여성단체가 노동운동의 범부와 실천적으로 맞닥뜨린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여성노동자에 대한 생존권투쟁지원활동은 꾸준히 전개되어、86년에 여성단체들의 연대로 결성된「생존권대책위원회」는 87년「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결성에 이르기까지 기반이된 또다른 연대활동은 85년부터 매년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여「3·8여성대회」를 개최해온 것이다. 85년3월8일「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의 구호를 내걸고 개최되기 시작한 3·8여성대회는 지난해의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반성 위에 그 한해의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장으로서 올해 5회를 맞게된다.

87년2월、앞서의 연대활동을 모태로 22개여성단체가 연합한「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출범은 여성운동이 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잡아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의 통일된 힘으로 정치투쟁을 수행하여 생존권투쟁지원을 중심으로 과제별 연대를 일상화、조직화함으로써 본격 대중조직구축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87년 88년들어 각 지역마다 여성운동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어 합류함으로써 전국적조직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대중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여성운동단체 또한 초기의 미분화상태에서 벗어나 여성노동자회、여성민우회、여성의 전화등 계층별、영역별 특수성으로 분화、발전해가고 있다.

나) 87년이후 여성대중운동의 성장기

87년6월투쟁 이후、사회 각부분의 대중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행동화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여성운동 또한 여성단체중심이 아니라 본격 대중운동으로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가장 크게는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노동운동의 비약적 성장 속에서 자리잡기 시작한것이 여성노동자운동이다. 여성노동자운동을 그 실천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노동조합내의 여성들이다. 노조는 노동운동의 기본단위일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운동의 기본단위다. 여성노동자대중이 안고있는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대중의 기초조직으로서 특히 여성부는 여성노동자대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며 특히 요구를 수렴하고 조직하여 노동조합이 이를 실천토록 하는 전문부서로서의 성격과 일부를 갖는다.

콘트롤데이타、삼성제약、은행의 결혼각서제폐지 등 여성노동자대중의 특수요구해결에있어 70년대에는 그 사례가 손에꼽을 정도였으나 87년7·8월노동자대투쟁에 이르러선 투쟁이 전개된 거의 전 사업장에 걸쳐、생리휴가、차별임금해소 등 여성의 특수요구가 제출되었다.

부천의 삼령정밀 코름방노조등 생산직에서의 차별임금해소투쟁이 떠오르는 만큼、노동자의 범주로서 여겨지지도 않았던 사무직여성노동자의 진출또한 두드러졌다. 노동자로서의 자기인식확산、사무직노동운동의 확산에 힘입어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이 노조결성에 앞장서는 한편、차별임금해소투쟁도 전개하였다.(대림산업건설、현대해상화재보험등) 차별임금의 폭이 생산직보다는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경우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차별임금해소투쟁에서 사무직여성노동자의 동력화가 요구된다.

이외의 특수요구해결로 세진전자6개월、TND에서 12개월 유급 육아휴직제、삼성제약에서 수유시간쟁취 등 여성노동자의 특수요구가 많은 사업장에서투쟁력화되고 있다.

두번째의 범주가 노동자가족이다.「투쟁에 가족이 동참한 곳은 승리했고 그렇지않은 곳은 패배했다」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부인중심의 가족투쟁은 노동운동의 중요세력화 되었다. 이러한 가족투쟁의 확대、발전은、그만큼 노동자계급의식이 보편화、확산되고 있으며 역으로 가족까지 포함、바야흐로 2천 5백만 노동자계급운동으로 성장해가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반영한다.

초기 남편의 투쟁에 대한 일시적 지원에 머물렀던 부인들은「경원세기」에서 가족실천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을 시발로 거의 모든 투쟁사업장에서 가족투쟁위원회를 구성、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투쟁의 주체、해방의 주체로까지 성장하고 있다.

부인회、부녀회 등으로 지속적 실천을 담보하는 조직건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독금속부인회의 탁아소사업、아주파이프부녀회의 소비조합사업등 노동자부인들의 조직화 및 활동은 제반 생활상의 요구들、특히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 여성의 특수요구와 관련되어 그 주체로 나서야할 중요세력이다.

세째、여성노동자운동체의 성장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노동분과를 비롯、전국의 주요공단지역에 여성노동자운동체가 활발한 지원、일상활동의 전개를 통해 목적의식적 여성노동자운동을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이상 여성노동자 운동을 실천주체별로 살펴보았다. 여성운동은 남녀노동자 단결의 토대이며 전선을 확대시켜 노동운동을 강화한다. 이제 여성노동자운동은 각 실천단위의 굳건한 자리매김과 통일단결한 실천으로 강화되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여성노동자운동외에도 각 계층별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빈민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부방、탁아소운동도 이제는 여성운동의 중요범주가 되었다. 탁아소운동은 가난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여성빈민들、즉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운동이다.

그만큼 탁아소운동의 내용과 폭도 넓어져 이제는 단순히 아이봐주는데서 벗어나 지역사회운동의 중심으로서、또는 노동자부인들의 자주적인 실천틀로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기혼여성을 노동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지역별、직장별 탁아소가 더욱 많이 존재해야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빈민여성의 경우、탁아소운동외에도 지역의 제반 문제들、—상·하수도、전기、통장선출、화장실 등으로부터 철거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운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여성농민조직 또한 활발하다. 가톨릭농민회、가톨릭여성농민회 전국농민협회、기독농민회등 제 농민운동체내의 여성농민들 뿐 아니라 각 지방의 여성농민들은 소몰이싸움、수입개방반대투쟁、의료보험거부투쟁、수세거부、잡세거부투쟁등 모든 농민운동에서 주체로 서고 있다.

이러한 기층여성들의 조직적 진출외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이 주부들이다. 잠실5단지등 아파트단지에서의 일조권침해반대투쟁등 일회적 투쟁도 있지만 교육문제、소비자문제등을 지역중심으로 지속적운동으로 펼쳐나가는 주부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학부모모임、교육문화연구회、한마당등 이러한 조직외에 대구경북지역에선 대구경북학부모협의회까지 결성되었다. 자녀교육이 주부들의 주요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주부대중운동으로 뻗어나가는데 교육문제는 큰 활력이 되고있다.

또한 소비、특히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며 농촌과 도시、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한 살림등의 자주적 생활운동이 뿌리박아나가고 있으며 대기업·정부의 편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왔던 기존 소비자운동의 대체세력으로 주부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상 87년 이후 자주적 여성대중조직의 성장과 현황을 개괄해 보았다. 이 여성대중조직들의 성장은 여성운동과 전체 변혁운동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데 중요 밑거름이 되고 있다.

3、여성운동의 확산 발전을 위하여

여성운동은「여성으로서 겪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여성운동은 그 해당 사회의 여성문제와 발생근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하며、우리의 경우 전체변혁운동의 과제하에서 그 안의 한 범주로서 여성운동은 존립한다.

80년대 후반 여성대중들의 진출、자주적 대중조직의 성장은 여성운동을 명실상부한 자체변혁운동의 일부문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계급·계층·영역별로 이러한 여성조직은 전문화되어 뿌리내려가고 있다. 각 계층、영역별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가 조직되고 운동화되고 있으며 투쟁으로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지식인 중심의 여성운동이 기층주도의 현장으로부터의 동력으로 탈바꿈해나가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여성운동의 보다 확고한 뿌리내림을 위해、전체변혁운동의 질적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요구의 조직화、더 많은 지역의 조직화 더 많은 현장의 조직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韓相實 <여성민우회 상담부장>

◇글싣는 차례

1)학생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2)재야의 역할과 조직과제
3)노동자투쟁과 변혁운동
4)농민운동의 쟁점과 당면문제
5)여성의 실체와 운동의 과제
6)도시빈민운동의 실태와 당면과제
7)시리즈를 마치며

鹿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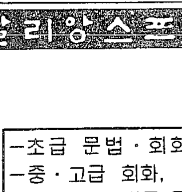
너무 다른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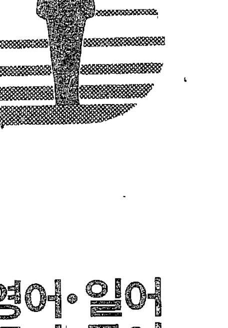
▲『함간에 떠들썩한「악마의 詩」파동에 우리는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이른바 근세기 예술과 종교의 대립으로도 일컬어지는 영국인 작가 살만·루시디의 그 문제작「악마의 詩」가 마호메트를 모독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2단기사중에서>『왜 이 소설이 말이 많을까?일부 지식인층의 평은 너무 속되고 천한 作品이 아니냐고 말들이 많읍니다。우리의 위대한 우방이며 형이요 은인이었던 비록, 우리에게 껌과 초코렛의 맛을 가르쳐주고, 굶어죽지 않기위해서는 치마끈을 풀고 가랑이를 벌려야하는 것이라고 베옷 입은 우리의 누이와 우리의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기까지 한 나라。※책은 전국 주요 서점에만 있읍니다』<광고中에서>▲달라도 너무다르다。우—리—는 비록 성자와 민족성의차이라고만 여길수 없는。바로 자신들이절대시하는 마호메드의 부인들이 창녀로 묘사되고 그것이 회교의 전체를 모독했다고 분노하는 회교도 굶어죽지 않기위해 치마끈을 풀고 가랑이를, 벌려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나라를 절친한 우방이라고 애써 강조하는 우리, 더우기 악마의 詩에서 작가는 분명 마호메트가 아닌 마하운드라고 밝히고 있으며 종교적 한계를 예술로 뛰어넘고자한다고 했음에도 그에게 살인특공대가 보내지고 엄청난 현상금이 붙었다。또, 살인특공대는 영웅 대접은 물론이고 거사(?)가 실패하여 죽었을 경우 가족들은 국가유공자로 대우한다고한다。<어제 친구 한놈은 아주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듯이 자기 엄마도 이제 8만원짜리 국가유공자에서 12만원으로 올랐다며 희죽희죽 웃었다>▲민족성은 한집단의 특유한 기질을 드러내는것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높여준다。흔히 민족문제에서는 두가지 역사적 경향이있다고한다。민족 생활및 민족운동이 각성, 모든 민족적 압박에 대한 투쟁, 민족국가의 창조가 있으며 민족 상호간의 교섭과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는 창조가 있다고한다。지금우리는 어느것을 먼저 시작해야하겠는가<池>

"애드·젠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애드·젠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기업에는 보다 효율적인 이익을, 대학에는 소중한 그들의 미래를 돕는 일에 보람을 삼고 있읍니다.
애드·젠은 전국의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보다빠른 정보망으로 기업의 원활한 광고활동을 위해 일하는 대학신문 광고대행사입니다.
전국 대학신문 광고문의
TEL. 741-1661 741-1662
주식회사 애드·젠 ZEN ADVERTISING INC.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 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 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작정하신 이라면 외면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둘 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 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 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 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04기 수강생 모집안내
기 간 : 1989. 3. 6~4. 28(8주)
과 정 : 1일 75분 주5일 수업
강사진 : NATIVE SPEAKER 직강
반편성 : LEVEL에 따라 6~13명
등 록 : 선착순접수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

프랑스語
3~4월 학기수강 접수중
개강 : 89.3.6(月)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 - Adultes
MÉTHODE TÉLÉVISUELLE
Nouveau/Différent/Actuel
알리앙스프랑세즈
—초급 문법·회화 일반반
—중·고급 회화, 비데오반
—시사·무역·작문·동시통역반
—문학특강반, 연극 및 토론반
séoul centre ☎755-4972, 5702(중구)
nam-séoul ☎555-1125, 1126(강남)
alliance française 財團法人 韓佛文化財團 알리앙스 프랑세즈



개강 3월2일

영어·일어 중어·독어 TOEFL 600
시사영어학원
종로2가 종각뒤편 734-2442

英字日刊紙 The Korea Herald 直營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 3월 2일
英語·日語
中·佛·西·露·獨語
▣코리아 헤럴드 社說 ▣영문해석
▣동시통역 대학원입시반 ▣기초영어
▣고득점 TOEFL 종합반 ▣성문종합
▣AFKN 스크린 합동 ▣기본영어
▣ Vocabulary 22,000 ▣실력기초
TOEFL 아카데미 L/C ▣영작문 ▣TIME DIGEST
▣생활 영어 회화
∘Practical English ∘Stream Line
∘Spectrum English ∘English Alive
▣美國人会話 ▣일본어(박성원Ⅰ·Ⅱ)
▣日本人会話 ▣일본어 SCREEN
삼일빌딩 무교동 조흥은행 두산빌딩 본학원 삼일로 을지로 입구역 롯데호텔 외환은행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시청각 영어회화 과정
◈ 제52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 1989년 3월 7일
교육과정 : 1일 2시간·주5일(月~金)
수업· 총6개 수준·각 수준 8주
강 사 진 : 미국 Harvard 대학출신등 고학력 수준의 전원 Native Speakers.
전형및반편성 : 개인별 테스트에 의해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 반 12명으로 반편성
◈ 수업시간 ◈
7-9AM 5-7PM
8-10AM 6-8PM
9-11AM 7-9PM
10-12AM 8-10PM
신세계백화점 대연각 명동 세종호텔 The Korea Herald 남산3호터널 퍼시픽호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민족민주운동 역량의 총집결체로

―결성 1개월…「전민련」의 향후 進路

전민련은 건국이후 최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연합체로 「반독재민주화」와「반외세자주화」「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정책·지도·투쟁기구를 지향하고 있다。

I、전민련 결성 의의와 배경

위대한 우리민족은 20세기 들어와 근 1백년동안 일본군국주의의 혹독한 탄압과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지배、군사독재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민족민주투쟁을 전개하여왔다。일제에대항하여 거국적인「3·1운동」、「항일무장투쟁」등을 벌였으며、분단이후에는 수십만명의 희생자를 내면서「단독정부반대운동」을 벌였으나 6·25전쟁등을 통해 민족자주역량은 무참한 탄압을 받고 말았다。

그러나 50년대 들어 한동안 잠잠하던 민족민주투쟁은 다시「4·19혁명」、「한일회담반대투쟁」등을 통해 고양되었으며 70년대이후의「유신독재반대투쟁」、「광주항쟁」、「6월항쟁」등을 통해 심화、발전되고 있다。

건국이후 최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연합체로 평가되고 있는「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는 이처럼 끈질기에 지속되어온 선열들의 민족민주투쟁의 정신과 역량을 계승、발전시 것으로서 전국 8개부문단체와 12개지역단체 산하 20개단체도 제각기 개별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의 개별단체를 전부 합치면 2백여단체나 되는 방대한 규모이다。

「전민련」결성이 현시기에 갖는 민족사적 의의와 배경은 크게 다음과같은 3가지로 평가할수있다。

첫째、60년대 70년대의 민주화투쟁이 주로 청년학생들과 양심적인 지식인、종교인、문인등 중간계층이 주도하였던데 반해 80년대 중반이후의 민족민주투쟁은 인류사변혁의 실천적 주체인 노동자·농민등 근로민중이 주도하고있다。80년대들어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있는 근로민중역량은 6월항쟁투쟁의 주역을 담당하였고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을통해 그들의 투쟁역량을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전민련」은 이처럼 발전하고 있는 노동자、농민 등 근로민중을 운동의 축으로하여 결성되었으며、앞으로도 민중이 투쟁전선의 중심이 되는 조직체로서 발전해나갈 것이다。전민련의 1천여 대의원 중 노동자 농민 대의원이 절반인 5백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전민련」운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70년대의 우리 운동이 주로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시민민주주의의 확립에 그 목표를 두었음에 반해、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민주화투쟁뿐만 아니라 모순구조를 파생시킨 보다 근원적인「반외세자주화투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나아가 자주화·민주화투쟁을 통한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의 궁극적달성만이 우리사회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조국통일운동의 절박성이 함께 인식되고 있다。

전민련은 이처럼 80년대이후 확산되고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반독재민주화투쟁」뿐만아니라「반외세자주화운동」「조국통일운동」을 주요한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는것이다。

셋째、전민련은 길게 보아서는20세기들어와 줄기차게 이어온「한일투쟁」「반미투쟁」「반군사독재투쟁」의 민족민주투쟁역량을 계승한 것이며、단기적인의미로는 지난대통령선거과정을 통해 분열、반목을 거듭하던 재야 민족민주운동세력을상설공동투쟁체의 차원에서 다시금재편、결집시킨 것이며、70년대 80년대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온 민족민주운동역량의 구체적 표출이라 볼 수 있다。

치열한 반군사독재투쟁을 통해국민적지지와 신뢰 속에서 성장해온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을 통해 분열됨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켰으며、통일된 투쟁전선을 결집시키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중복、낭비、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이와 같은 운동의 분열과、비효율성을 지양하고 전국적인 운동의 종합、결집、효율성을 통해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전민련이 탄생된 것이다。

근로민중을 축으로 하는 상설공동투쟁체
내부 노선 통일·대중기반 확충이 과제

그러나「전민련」이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총집결체로 성장하기위해서는、나아가 확고한 통일전선의 맹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첫째、민족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민중들의 조직적 참여가 뒤떨어진다。노동자계급의 경우에도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조가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전대협」「전교협」등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 조직과는 운동선상에서 제휴、연대를 하고 있으나、보다 발전된 운동의 통합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명칭이 연합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협의체적 수준에 머물러 확고한 실천적 지도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또한 내부에 각 정파、노선간의 의견대립이 잔존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여 공동실천을 도모하고 투쟁력을 재고하는문제가 쉽지는 않을것이다。

셋째、「전민련」이 아직까지는국민대중속에 널리 뿌리박은 조직이 아니라 소수선진운동가들의 결합조직이 대부분으로、광범위한 국민대중 속에 어떻게 그 조직을 확산하고 지지기반을 넓히느냐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전민련」은 그동안의 줄기찬 민족민주운동투쟁역량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며 노동자·농민 등 근로민중이 운동의 중심이 되고 청년학생들이 투쟁의 동력이 되며 양심적인 중간계층、중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석하는 애국적 민족민주운동역량의 총집결체인 것이다。

II、전민련의투쟁방향

전민련은 이땅의 진정한 민중해방과 자유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당면과제인「반외세자주화운동」「반독재민주화운동」「조국통일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반외세자주화운동은 분단이후 민족의 분단과 고통을 강요하고 생존과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수탈에대항하여 싸우는것을 그 기본 목표로 하고있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는 1천여개의 핵무기는 철수되어야하며 불평등한「한·미행정협정」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한다。군작전지휘권도 조속히 되찾아야한다。우리의 농가경제를 도탄에빠뜨리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있는 무리한 수입개방압력을 막아내야한다。

「전민련」은 조국의 진정한 민주화를위해 민중의 생존권과 시민각자의 민주적 제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될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이땅의 주인인 노동자、농·어민 빈민이 생산과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분배받아야 하며、민중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반민중악법은 개폐되어야 한다。장시간 노동、실업 각종 재해와 직업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또한「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악법이 개폐되고 고문과 폭력이 추방되어야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 민중의 이 모든 고통、가난과 소외는 분단구조와 냉전「이데올로기」가 빚어낸 직접적인 산물이다。따라서 민족대다수는 통일을 고대하고 있는 반면에 외세와 이에 의존하고 있는 군사독재와독점재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분단고착을 바라고 있다。

전민련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종결되어야 한다。즉「휴전협정」대신「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군축이 단행되어야 한다。또한 핵무기와 주한미군은 조속한 시일내에철수되어야 한다。

외세와 군사독재가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염원하는 자주·민주·통일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전민련은 민중과함께 외세와 군사독재와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다。

이미 외세와 군사독재는 민중운동과 전민련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고있다。6월항쟁의 엄청난 민중역량에 밀려 기만적인 유화정책을 일시적으로 펴고있던 노태우군사독재는 지난연말을 기해 전국 각지의 민중생존권운동을 무차별 폭력으로 탄압하면서 그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여의도 농민집회를 빌미로 민중운동과 나아가 전민련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민련은 앞으로 다가올 외세와 군사독재의 어떠한 탄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굳굳한 민중들의 투쟁 위에 애국선렬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자주·민주·통일의 해방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정 문 화 〈전민련 선전국장〉

밀착렌즈

가로쓰기는 독자의 절대적 요구

―本紙 편집체제의 전환에 붙여

正論直筆 실천을위한 39년의 역사、東大新聞의 연륜도 이제 不惑을 눈앞에 두고있다。

부산의 피난지에서、4·19、6월항쟁등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쌓아온 1천호의 지령은 동국의 산증인으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한다。그러나 그 역사의 무게가 때론는 혁신을위한 노력들을 어렵게 만들기도했다。

편집상의 문제이지만「세로쓰기」에서 쉽게「가로쓰기」로 바꿀수없었던것도 여기에 연유한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란 어디까지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수용자 대중을 전제로해서 존립하는 것이기에 더이상 독자에게 외면당하는 신문을 제작할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本紙도 거듭 태어남의 일환으로 새학기인 다음호(1012호)부터 전면가로쓰기를 단행키로한것이다。

지금에와서야 비로소 가로쓰기를 실시한다는 것이 물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다。사회의 公器로서 신문은 그 사회의 비판이나 지적은 잘하지만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매체의 혁신에 대해서는 곧 잘 무심히 지나치기 쉽다。

동대신문 또한 이러한 매체의 혁신을 통한 발전적 변화의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신문의 편집이「첨단의 정보를담는 그릇」이라 했을때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신문이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어야 하는 당위성은 여러곳에서 발견된다。

그첫째는 독자들대다수가「가로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늙은독자가 줄어들고 새로운 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구태의연한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이는 젊은독자에게 무거운 관세장벽처럼 느껴질 것이다』라는 모리슨의 말처럼 편집은 독자들 대부분이 가로쓰기세대로 그들의 독서습관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으며 항시 새로운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가로로 된 인쇄매체만을 보아온 세대에게 세로로 된 신문은 거부감을 줄 뿐만아니라 가독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하여 가로쓰기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는 상당히 높다。본지 지령 1천호 기념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63·73%、교수의 39·3%가 가로쓰기에 적극찬성을 표시한 것에서도 독자들의요구를 잘 알 수 있다。

둘째로는 눈(目)의 구조에 따른 가독성의 능률을 지적할 수 있다。인간은 生來的으로 가로를 읽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佐藤勉박사는 『인간의 눈은 좌우로 운동시키기에 잘 발달된 2개의 근육에 의해서 力學上 단순한 힘으로 움직이게 된다。이에 비해 눈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능은 아주 복잡한 것이어서 인체중 가장 복잡한 근육의 작용을 빌어야 한다。그러므로 문자가 옆으로 나란히 있게 되면 눈은 단일하고 편안한 운동만으로 읽을수 있는데、세로로 줄지어 있으면 아주 복잡한 기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행을 좇기 어렵고 쉬 피로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큰 흐름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새로 창간되는 일간지에서도 가로쓰기의 장점을 인정하여 전면을 가로쓰기를채택하고 있으며、기존의 일간지 조차도 스포츠면이나 문화면등을통해 가로쓰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대학신문의 대부분이 가로쓰기를 하고 있다。본지를 비롯해 몇개 대학들이 세로쓰기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들과의 실천적인 대화속에서 바뀔 수 있으리라 본다。

이처럼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요구가 가로쓰기 편집과 부응함을 알 수 있다。

신문의 가로쓰기 문제는 곧「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이「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하는 내용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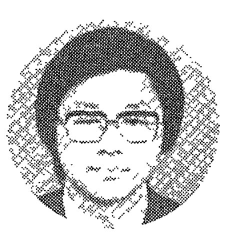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만을 강조할 때에는 자칫 편집우월주의에 빠져 빈약한 내용을 갖기 쉽고 과대포장에 그칠수 있다。

동대신문은 가로쓰기 체제전환과 더불어 껍질을 깨는 아픔으로 독자들과 함께하는、동국공동체 건설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재다짐의 결의를 새롭게한다。

〈편 집 부〉

인터뷰

반독재 민주화통한 통일투쟁 전개해야



여 익 구 〈전민련민주쟁취위원장·同門〉

지난달 21일 전국적 애국민주운동역량의 총집결을 기치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 발족되었다。

근로민중을 중심으로 청년·학생、교사、문인、종교인、언론인등 각계각층의 애국민중이 참여하여 건설한 전민련의 위상과 투쟁방향들을 알아보기위해 전민련 민주쟁취위원회 위원장 여익구(본교67·사학)동문을 만나보았다。

전민련은 87년 대통령선거이후 비판적지지론과 후보단일화론의 갈등으로 시작된 그간의 민족민주운동세력간의 분열을 불식시키고 겸허한 자기비판과 애정어린 상호비판으로 민민운동의 대의에 따르기로 한것이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우선 학생들이 주장하는 통일전선체로서의 전민련의 위상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물론 학생들이 말하는대로 전민련은 통일전선체의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전민련은 통일전선체로서의 맹아적 단계라고나할까요。아울러 과거 사안별 투쟁의 단계는 넘어섰다고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대협이 전민련에 참여못한 이유와 전민련이 바라보는 학생운동은 어떤것입니까?

▲전민련은 학생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학생운동의 선도성은인정합니다만 이제는 대중적 정서와 요구에입각한 자기위상설정에 고민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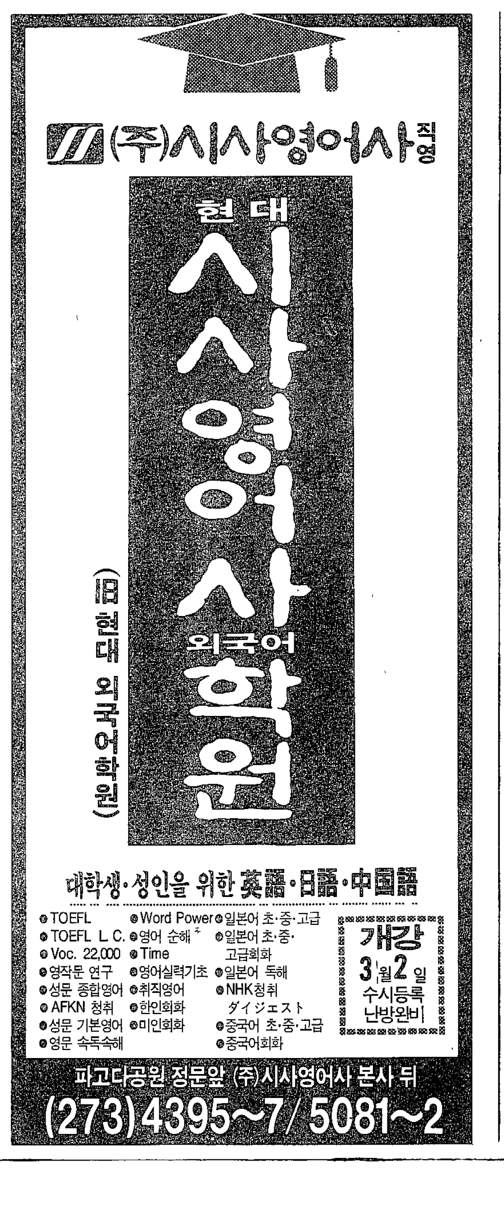
―앞으로 조국통일투쟁과 반노태우투쟁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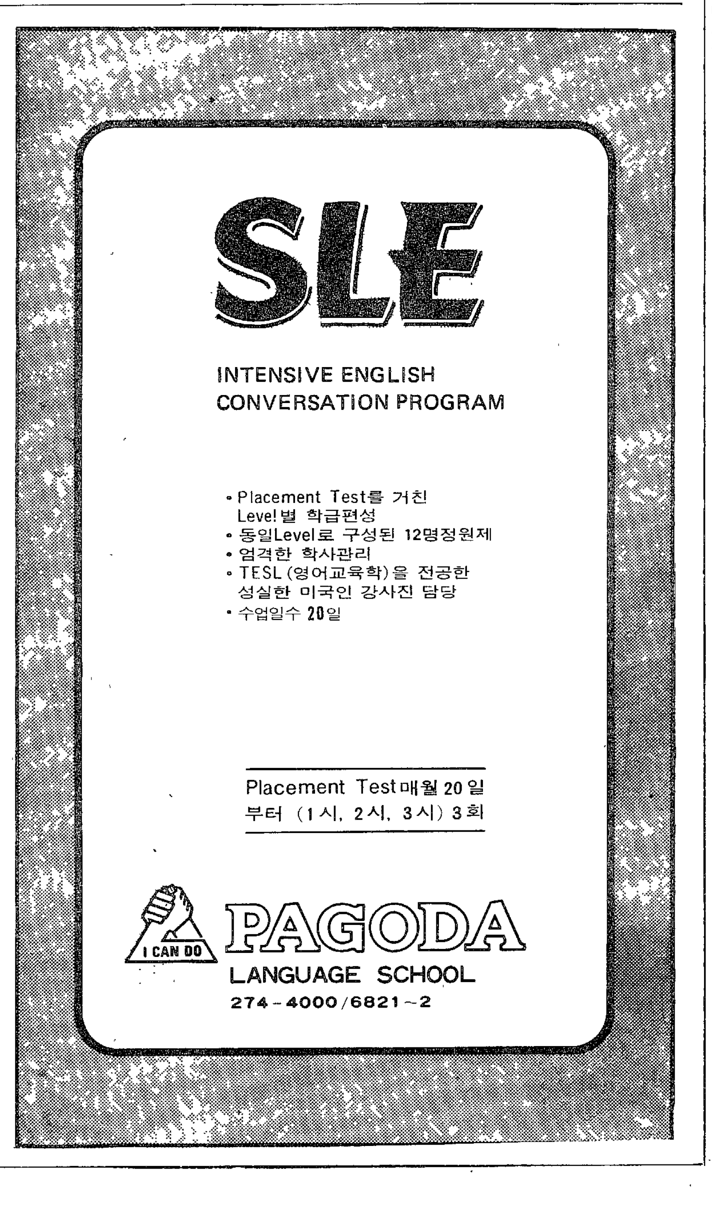
▲작년에는 조국통일투쟁과 광주학살책임자처벌및 노태우퇴진투쟁이 정파간 기득권다툼때문에 기능적으로 분리됐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기능적 통일투쟁과 소시민적 관념성을 비판해가며 반독재 민주화를 통한 통일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입니다。

―본교 학원자주권수호투쟁에도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셨고 그때문에 학교측으로 부터 밀고를 당했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사실 67학번으로 아직 졸업을 못한 4학년입니다。동국의 학생운동도 학원자주투쟁과 정치투쟁의 건강한 결합속에 진보적 이념을 가진 학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끝내고、대학로집회에 가야한다며 자리를 뜨는 여익구씨 뒷모습에서 전민련의 앞날을 기대해 볼수 있었다。〈濬〉





민족해방문학의 현단계

민중적 시각통한 민족고유정서 표출돼야

「한국문학」이라면 우선한국어로 쓰여져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야한다。그렇다면 단지 반국의 문학만이 한국문학은 아닐 것이다。나머지 잃어버렸던 반쪽의 문학을 복원시키고 민족문학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해서 당면과제인 통일조국의 수행을 이뤄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의 문학사로는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기 어렵다。이제 새로이 대두되는 민족해방문학의 향방에 주목하며 문단은 물론 모든 학계에서도 새롭게 사관을 재편하고 재조직하는데 주력해야 할것으로 본다。

Ⅰ. 교포문학—민족문학 지평의 확대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해외거주 교포들의 문학작품도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해방문학의 한 부문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성과 굴곡된 시각에 물들어 있는 기존 문단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해외교포들의 문학은 크게 미국·일본등지에서 활동하고있는 교포들의 작품과 소련·중국등 사회주의권내에서 활동하고있는 교포들의 작품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중 일본거주 교민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문학이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교포문학이 주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우리 역사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近·現代史로써 8·15직후의 미군정, 일제하의 함일 민족해방운동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지니는 기왕의 작품들이 외부압력과 편협한 사관에 기인,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포문학작품은 역사의 중요한 대목들을 민중적 시각에 입각하여 점면에서 기술하고 있어 문학계에 던지는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겠다。특히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교포들에게서 이뤄지는 연변문학은 순수한글로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민족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작품 속에 그대로 융해시키고 있어 민족사의 중요한 한 고리역할을 담당한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교포 작가로는 김달수, 김학철, 이근전, 김석범, 이은직씨등이 있으며 이들의 작품이 국내에서 출간되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간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을 다루고 있는 이근전의 고신일의<새봄에 있은 일>, 허만석의<다시본 모습>등 연변작가의 단편이 수록되어 국내에서 출간된 책<일송정 푸른솔은>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는데 이들 작품을 통해서 민족문학의 한 흐름과 해방이후 단절되었던 간도이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 시킬 수가 있다。

뿐만아니라 재일동포의 작품인 김달수의 <태백산맥>이은직의 <탁류>등도 교포문학의 또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얼마전에 국내에 출간된 이 회성의 <금단의 땅>은 통혁당사건, 김대중납치, 인혁당사건등 70년대의 각종시국사건을 민중주체의 변혁운동, 통일운동의관점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 민족주의자의 버릴 수없는 두 조국의 묘사를 통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에의 뜨거운 염원을 그리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포문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로는 각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변혁주체의 모호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는 것이다。앞으로 교포문학으로서의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포문학에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국내에 소개된 작품의 편수도 미흡한데 완전한 문학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포문학이 우리의민족문학 영역속에 편입됨으로써 민족문학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포문학의 좀더 많은 소개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호간의 문학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지금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외동포 문학단체와의「교류」자유출판 교섭등이 좀 더 확대됨으로써 교포문학도우리의 한 문학사 속에서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작가협회 연변분회 주석인 이근전씨는 이러한 문학교류와 연구가 활동화되면 연변이 분단극복의 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이러한 재외문학의 소개는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민족문학의 공간적 확대로 앞으로의 진로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Ⅱ. 납·월북문인의 복원

북한문학의 이해, 교포문학의 편입외에도 불구문학사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과제는 문학사 속에 공백으로 존재하는 납·월북문인들에 대한 연구이다。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한국문학사에서 추방된 이들 납·월북문인들은 그동안 금지조항에 묶여 문학사 속의 미아로 존재하다가 지난해 7·29해금조치 이후에서서히 이들에 대한 연구가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해금문인들은 주로 1930년대와 해방공간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제적을 남기고 있는 카프와 해방공간의 문학노선연구에 귀중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금 문인들은 鄭芝溶 김기림, 李泰俊, 朴泰遠, 李庸岳등인데 이들은 30년대 주목받았던 작가들로서 우리의 근·현대문학사에 있어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의 확산은 공백으로 남아있던문학사의 복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外에도 金南天, 한설야, 이기영, 林和등 1백20명에달하는 해금문인에 대한 연구와 미해금상태로 남아 있는 홍명희의<임꺽정>등이 문단의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각문예지들과 문학단체들이 앞다투어 다루는 납월북 해금문인들의 연구는실로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문학의 위상을 밝게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가 단면적이고 분파적으로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문학사의 전체적인흐름 속에서 이해, 통일문학사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부〉

◇글싣는 차례

1. 해방공간의 문학과 분단문학
2. 80년대 문학운동의 지평
3. 북한의 문예정책과 북한문학의 이해
4. 해외교포문학의 향방
5. 올바른 통일문학사의 정립을 위해

만주지역 무대로한「항일 민족해방투쟁」부각

문제를 바라보는시각에 한계 드러내… 재외동포 문학단체간의 교류와 자유출판교섭의 확대가분단극복 고리될 것

두 가족의 전혀 다른 가족史를 통해 항일 민족해방운동이 얼마나 많은 민중의 희생위에 이뤄졌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연변문학은 이 외에도 강치생의<퇴색한 사진>, <고난의 년대>는 김학철의 <격정시대>와 더불어 80년대 연변 조선족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는데<격정시대>가 한 인물의 의식구조를 추적한 혁명성장소설인데 비해 <고난의 년대>는 일제의 폭정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간

屈原의 孤高와 漁夫의 인생관

사회과학대교수·복지정책
손 준 규

博學·文才인 楚의 屈原은 정의감이 강하고 정열적 시인이었는데 상관과의 不和로 추방되어 초췌한 모습으로 상강강변을 거닐고 있었다。이 때 나이많은 어부가 그를 알아보고는 三閭大夫가 어인 지경이냐고 물었다。屈原은 세상이 皆濁하고 衆人이 皆醉하였으나 나혼자 淸醒한데 이 일로 추방됐다고 말했다。

이에 어부가 말하기를 聖人은 일에 구애받지않고 세상형편에 어울리는 법인데 孤高하게만 굴다가 추방된게 아니냐고했다。이에 屈原은, 머리를 막 감은 사람은 갓(冠)의먼지를 털고, 목욕한사람은 옷의먼지를 털며 입는법인데 청렴한 내가어떻게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쓰겠는가? 그럴바엔 차라리 강물에 빠져 고기밥이되는 것이 낫지라고 기염을 토했다。

어부는 이말을 듣고 웃으며 뱃전을 두들기면서 떠났는데 그 때 다음과 같은 노래가 들렸다。「滄浪의 물이 맑으면 소중한 갓끈(纓)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땀내나는 발을 씻자구나」

대학을 나서는 졸업생들은 모두 원하는 분야에 취직하여 직장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지식인이 빠지기쉬운 가장 큰 인격의 함정은 교만과 경망이다。우리 주위에는 자기의 건강, 지식, 지위 등으로 교만과 경망의 병에 빠져 애석하다는 주위의 동정을 받는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교만한 천재보다는 겸손한 보통사람이, 지조없는 지식인보다는 신실한 평범인이 많았으면 한다。

직장을 자주 바꾸는 일보다는 웬만하면 그 곳에서 기반을 잡고 나아가 그 분야의 大家,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이 아닐까싶다。

닭은 물이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孤高보다는 물이 맑도록 개선, 개혁하면서 탁한 물에서도 자기성취가 가능한 것은 열심히 성취해야한다。孤高냐 妥協이냐의 양자택일보다는 선후의 순서문제로보는 지혜가 좋을듯싶다。

東岳路

학생참여에 의한 총장선거는 언제쯤…

89학년도 전체교수회의가 지난 20일도서관에서 열렸다。

지난해의 학자투를 통해 의결기구로 재탄생한교수회가 변신이후 두번째 갖은 이번 정기총회는 학생들의요구에 의해 임기중 도중하차한 吳國根초대회장의후임을 선출하는 것외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오던 교수회 규정의 개정안 통과를 안건으로 했다는 데서 주목을 모은 자리였다。

그러나 학자투의 정신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는 구체적 지침으로서의 교수회칙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에게 이번 전체교수회의의 결과물은 그리 개운치만은 않은 수준에서 그치고말았다。

그중에서도 지난 86년 1월 취임한 李智冠총장의 임기가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당장 눈앞의 불로 다가온 총장선출에 관한 규정은더욱 석연치않은 점이 많았다。

이날 통과된 교수회 규정의 개정안 제16조총장및 부총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조항은 그간에 기되어진 요구와 기대와는 무관하게 종래의<총장후보의 추천>에 단지 부총장후보의 추천조항만을 신설하는 데 그치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폭넓게 요구되고 있는 민주적 총장선거제도의 보장은 종래대로『이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선문답만을 남기고 있다。

세종대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지난해의 학내민주화투쟁을 거치면서 교수와 학생, 직원까지가합의를 거쳐 총장후보를 단일추천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80여년 성상과 학원자주의 모범임을 자부하고 있는 본교에서는 올해로 닥친 신임총장선거를 앞두고 아직 구체적인 선거제도조차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학사운영의 최고운영권을 갖는 교수회에서조차 애매모호한 규정만을 두고 차후의문제는 때가되면 논의하자니 도대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총장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학교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종석記者〉

書評

갈등과맛섬 그리고 이야기구조

「슬픈어릿광대」—시인의 감수성 전달하려는 의지의 수단
가락과 심상살린 현실우화와 비판의식 지향—「그리운잠」

현실에 대응하는 시인의 감수성은 언제나 곤두서 있게 마련이다。그것은 시인이 세계안의 존재로서 그의 삶과 시를 동시에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경우에도 시인의 삶과 시는 그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견고하게 결박되어져 있다는 말은 그래서 설득력을 지닌다。崔淳烈의 시집「슬픈 어릿광대」의 시들을 읽으면 이같은 사항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崔淳烈의 시들은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항목들을 다만 시적 대상으로하고 있는 것처럼 얼핏 파악하게 된다。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 속의 항목들이 현실에 대응하는 시인의 감수성 즉 시정신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지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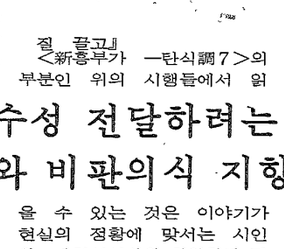
『아들놈 대갈통만큼 뭉친도라지를 받아들고 좋기듯 되돌아 왔다。

그날 밤 곤한 잠 속에서 나는 도라지꽃 한들거리는 텃밭에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더듬고 있었다。』

—<도라지꽃>, 부분

「아들놈 대갈통」과「도라지꽃」이 연결되고「도라지꽃」과「잠」이 합쳐지면서 모성애로 집약되는 과정을 이짧은 시행은 깨닫게 해준다。그런데「대갈통」과「좋기듯」이라는 시어 속에 잠겨있는 시인의 현실 대응의 감수성은 매우 곤두서 있고, 현실이란 삶의 정황속에 시인은 긍정이 아닌 비판과 갈등으로 맞서 있음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삶과 현실 그리고 일상속에 비판과 갈등으로 崔淳烈의 시가 맞서있다는것을 확인하게된다。「슬픈 어릿광대」의 시집속 시편을 이렇게 공통항목으로 묶을수있는 것은 시인의 치열한 현실에의 비판정신과 삶에대한 갈등을 언어와 조우시키고 있기때문이라 판단하게한다。崔淳烈의 첫시집「어둠을 빛이라 불러다오」가 군사문화의 내땅일세 호박즉 쑤어먹던 시절시절 꿈같더니 똥장군 물려놓고 고무신짝 절질 끌고』



<新흥부가 —탄식調7>의 부분인 위의 시행들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야기가 현실의 정황에 맞서는 시인의 대현실인식의 치열함과 맞물려있는 점이다。이것은 朴燦의「그리운 잠」속의 시들 특성을 단지 이야기의 형식을 통한 현실의 우화화 그것을 뛰어넘는 비판의식의 지평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그림을 그립니다/기억의 저편에 있는 먼 당신을 추상합니다/하얀 종이 위를 춤추는 붓끝 그 어데쯤/별이 떠 오르고/이 따금씩 별똥도 떨어집니다。라고<그리고 잠>속의 부분들이 말해주듯이 정감의 바탕에 자리하고 있게 된다。

철부지 아들은 하늘이 밝고 크다지만 오늘도 눈치만 보는
나의 하늘은 왜 답답하고 옹색한가
「슬픈어릿 광대」의 〈악령일기〉中

우리는 왜 시를 읽는가。그 이유의 하나는 시인이 세계 안의 존재로서 삶과 현실에대한 연구이다。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한국문학사에서 추방된 이들 납·월북문인들은 그동안 금지조항에 묶여 문학사 속에서 실해진다。

崔淳烈과 朴燦의 시집「슬픈 어릿광대」와「그리운 잠」의 시들을 두고 이 점을 충족시킨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그것은 그들의 시가 세계안의 존재로서 삶과 현실에 육죄이면서 그들의 시정신을 그것에 치열히 맞서게하고는 있지만 언어가 가진 가락과 심상의 영역을 그들 스스로가 확보하는데 많이수동적이고 있음에서 비롯한다。그들은 현실에 갈등과 정감으로서 맞서거나 이야기화하면서 시어가 가진 가능성의 폭을 가락과 심상의 영역에서 자기화하는데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도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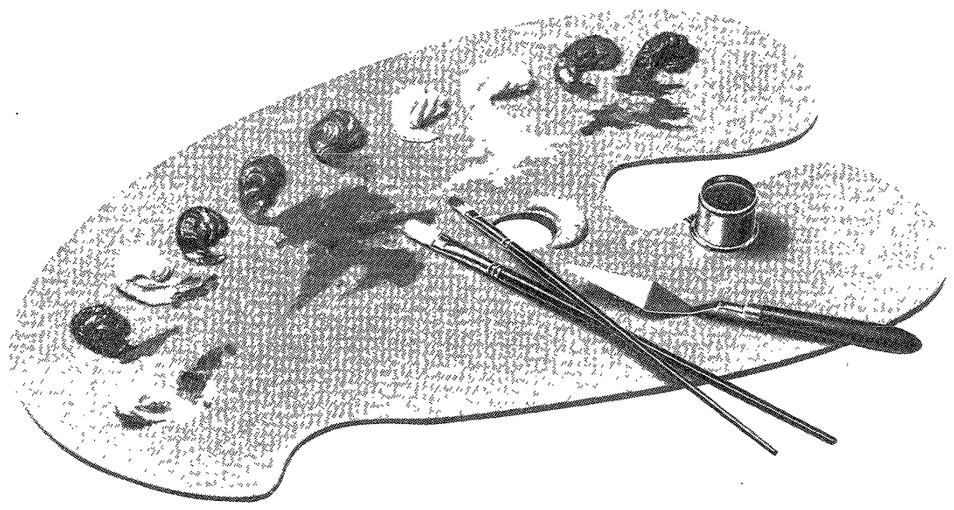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인이라는 공통점과 각자의 직업적 편차를 현실의 정황에 맞서는 갈등과 이야기의 형식으로 포착하는 시정신의 형형함은 기억해야할 사항이라 할수있을 것이다。그들의 앞으로 시작업은 그래서 이 점이 승계되고 언어의 가락과 심상이 자기의 것으로 창조되면서 확장 심화되어야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케한다。

김 선 학

<인문과학대교수·문학비평>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대학생활과 팬티라이너①

"마티스가된 기분!
오늘은 붓이 쓱쓱나가니…"



팬티라이너와 함께 상쾌한 하루
역시, 창작활동은 기분에 좌우되죠.
콘디션이 좋은 날은 그림도 쓱쓱!
오후까지도 이렇게 기분좋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건 팬티라이너 때문이죠.
팬티안에 살짝 붙여두면,
하루종일 팬티가 깨끗, 기분이 산뜻!
지금 나는 21세기의 마티스가 된 기분.

팬티라이너 이럴때 편리해요.
평소생기는 질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산뜻한 기분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또 여행중, 팬티교환이 어려울 때,
생리직전이나 끝무렵에 편리하게
사용하십시오.

*표는 미국킴벌리 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REGD TRADEMARKS KIMBERLY CLARK CORP, U S A
PRINTED IN KOREA SEP 1988

새학기「교수연구년제」시행

10년이상 근속교수 대상
「직원위탁연수」도 병행해

학교당국은 10년이상 근속교원을 대상으로「연구년제도」를 오는3월1일부터 시행한다.

교수능력계발과 학술자료수집등을 위한 연구기간을 1년씩 부여함으로써 학교에 복귀한후 학문적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마련된 이제도는 연간 전임교원 전체의 5%이내 인원을 선발, 봉급·연구비 및 상여금을 지급한는데 제반업무는 학술부에서 주관하게된다.

또한 3년이상 근속직원을 대상으로 최저 6개월부터 최고 5학기까지「직원위탁연수제도」도 마련,「연구년제도」와 동시에 시행한다.

본교 직원을 전문대학원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근무능력향상과 행정전문화를 지향하기위해 제정된「직원위탁연수제도」는 본인의 청원, 또는 학교계획에 의거 부서장이 추천해 선발하는데 연수에 필요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정의 교재대도 지원하며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한편「연구년제도」는 현재 서강대를 비롯한 몇몇 카톨릭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직원위탁연수제도」는 국내에서 처음실시되는 획기적인 제도로 위탁연수를 받은 직원이 행정업무처리등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전망된다.

◇「등록금동결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남부지구 청년학생결의대회」가 지난 21일오후1시학생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노동운동탄압 규탄
서총련학생 7백명

「노동운동 탄압규탄및 광주학살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서총련 남부지구 청년학도 실천대회」가 지난달26일 오후2시 7백여명의 학생및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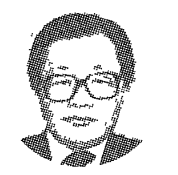
남부지구위원장 부선홍(서울대4)君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남부지구8개대학생 4백여명을 비롯 한국슈어프로덕츠노조(위원장=문선덕)、삼성중공업노조 (위원장=장경준)、대우정밀노조(위원장=윤치호)등 노조원 3백여명이 참가하여 노조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위장폐업사례및 노동운동탄압등을 보고하고 참가자전원은「5공악법청산·노태우정권 타도」를 외쳤다.

일부 학처장급 경질
의과대교수 신규채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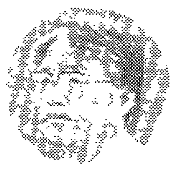
학교당국은 오는 28일자로 학처실장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한다.

인사내용을 보면 ▲경영대학원장에 尹鍾安 (회계학과) ▲불교대학장에 睦楨培 (불교학과)교수, ▲기획조정실장에 金鰲雄 (행정학과) ▲교무처장에 金正根 (영문학과) ▲비서실장에 李相賢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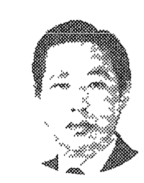
또한 金鎭澈 (전사회과학대학장·정치외교과) 교수의 보직사퇴로 兪光震 (정치외교과) 교수가 지난 1월4일자로 신임 사회대학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尹경영대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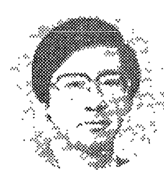


◇睦불교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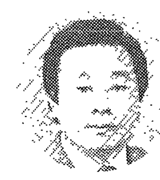


◇兪사회대학장

◇金기획조정실장



◇金교무처장



◇李비서실장

학교당국의 이번 인사는 지난해의 학자투 합의사항인 2천1실장 퇴진등에 따른 것인데 승진발령되거나 사퇴처리가 되지않는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12월 1일자 지난1월1일및 2월1일자로 발령된 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명단은 다음과같다.

▲동국의료원장 (겸직) ‖李智冠 (총장) ▲지역개발대학원장 (겸직) ‖閔丙天 (부총장) ▲의과대학 의학과전임강사‖황규근、박윤기、박동일、김성숙、한동선▲의과대학 의학과대우전임강사‖박종철 박석건 이동철 하상근 송기창 김태헌 이창우▲의과대학의학과부교수‖오영일▲의과대학 의학과 대우조교수‖장부환、정필현

〈이상 12월1일자〉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배성한

〈이상 1월1일자〉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이영현、고복현▲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윤성철、박상후、최병기、송기창▲의과대학 의학과 특별대우교수‖김찬수 ▲의과대학 의학과 대우부교수‖최병연

〈이상 2월1일자〉

「대학·재단 간담회」열려
대표10인의 연석회의 구성키로

본교 장단기 발전 대책논의를 목적으로한 재단임원, 대학 학·처 실장간담회가 지난달 25일 정오 이사장실에서 열렸다.

李智冠총장과 黃彰經이사장을 비롯한 법인이사전원、대학학장및 처 실장등 4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단과 대학의 긴밀한 협의로 대학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재단임원및 대학 학·처실장 간담회를 자주가짐으로 대학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함께 대처한다.

▲대학 학·처실장들의 대표를 선정 (5인)하여 재단임원 5인과 연합, 재단·학교연석회의를 구성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재단대표인 이사장이 선임하고 학교측 대표는 총장이 선임한다등을 합의했다.

신입생 신체검사

신입생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오는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보건소에서 단과대별로 나뉘어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25일 불교대·이과대·예술대、26일 이부대、27일 법대·경상대·사회대·농대、28일 공대·사범대순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시한다.

카메라 뒷상

텅빈 회의장!

비싼 호텔대신 도서관에서「교수회」총회를 연것까지는 박수갈채감인데, 회의도중 슬그머니 자리를 비운 회의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글=임수현記者 사진=서창훈記者>

동계 빈민활동
사당 철거지역서

「동계빈민활동」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학생60여명이 참가해 사당2동 철거지역에서 봉사·교육활동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철거지역의 도로청소, 복구정비사업, 탁아소건립등의 봉사활동및 의료·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주민학생토론회와 지역민의 의식수준고양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빈활신문등의 선전지도 제작배포했다.

또한 사범대학생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계몽교육을 실시했으며, 영화 동아리「디딤돌」은 빈활사진및 슬라이드를 제작해 오는 24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맞이해 사진전시회를 연다.

각종대회서 금메달 4개 획득
고영호(레슬링)·이준호(스케이팅)등

본교 레슬링의 고영호(체교4)·심상준(체교2)군은 지난9일부터 11일까지 테헤란에서 열린「이란혁명기념 레슬링대회」에참가, 자유형62㎏급과 그레꼬로망형68㎏급에서 각각 금을획득했다.

또 복싱의 조인주(체교2)선수는「제12회 인도네시아 대통령컵 국제아마추어복싱대회」에 밴텀급으로출전해 작년 유럽연맹전참피언인 소련의 눈마노프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또한 스케이팅의 이준호(경영대학원) 선수도 18일 태릉실내링크에서 열린「제4회 전국남녀종합인도어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종합우승과 함께 3관왕에 올랐다.

한편 金鎭煐복싱부코치와 裵基烈레슬링부 코치는 지난 18일 대한체육회주최로 체육회강당에서 열린「경기·지도자 시상식」에서 88올림픽에 공헌한 공로로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한국불교신서속간
출판부「조선시대편III」

본교 출판부산하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는 불교서적간행사업의 일환으로 구랍 25일 조선말기 불교사를 정리한「한국불교전서 제9책 조선시대편III」을 출간했다.

한국불교 전서는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한 신라시대로부터 조선시대말기 (1896) 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에 의해 저작된 현존 불교서적들을 오는90년까지 총11책을 완간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지난 80년5월말에 신라시대편 3권, 84년5월에 고려시대편 3권、87년12월에 조선시대편 2권을 발간했다.

전대기련 총회

「전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일 오후 3시 97개 신문사 소속 3백여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세계청년학생축전의 취재를 위한 남북대학 신문의 공동기자단구성▲대학신문의 남북상호방문을 통한 실상보도 등이 성명서를 통해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 (이하 자대기련) 정기 전체기자총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본교를 비롯한 고려대, 연세대등 19개대학신문기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양대 대강당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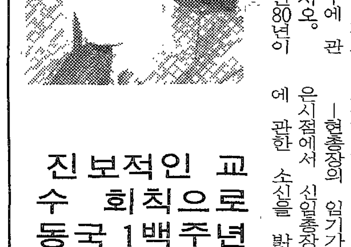
한편 자대기련은 서울교대신문사가 새로 가입 가입대학 수는 총40개로 늘어났다.

한의사 고시
1백% 합격

경주캠퍼스 한의과대졸업예정자90명은 지난달 13일 국립보건원에서 실시된 89년도 한의사고시에서 1백%의 합격률을 보였다。

의사、치의사、약사등의 고시와함께 매년 치루어지는 이 고시에는 졸업생도 3명 응시해 2명이 합격했다.

전체교수회장과 함께



진보적인 교수 회칙으로 동국1백주년 영광위해 매진…

지난20일 중앙도서관 3층에서 열린 전체교수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金鎔貝 (철학) 교수를 만났다.

—학자투8개항이 합의된후 새롭게 출발하는 교수회 회장선출 소감을 말해 주시죠.

▲우리대학에서도 진보적인 회칙에 의해 초대회장이었던 吳國根 (영문) 교수를 선출한바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吳교수가 지난학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교수회칙의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었음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에 지난20일 회칙개정안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회장으로서 완벽할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것이 등록금인상 문제로 우리학교의 경우 인상을 하지 않아도 학교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 실천여부에 관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학교재정은 지난80년이후 흑자로 돌아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재단의 재정전입금은 거의 없읍니다. 등록금인상은 경제기획원 물가지수 상승폭에 의한 것으로 학교직원및 교수의 봉급을 인상시켜야 한다는데 그 이유를 찾을수 있겠는데 학생들의 어려움과 학교의 흑자운영을 감안할때 가능한한 등록금 의존보다는 현재까지 흑자재정인 학교운영을 수익사업체제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재단과 협의하여 재정전입금 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현총장의 임기가 1년 남은시점에서 신임총장 선출제도에 관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학생및 직원은 총장직선을 주장합니다. 세종대의 경우가 그러한데 아직 본교는 직선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없고 새개정안에 교수의 참여만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연세대의 경우가 우리와 같은데 좀더 선진적인 방법을 신중히검토하겠읍니다. 교수회만의 선출보다는 학생、직원등 각 주체가 참여한다면 보다 민주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지난해 5명의 부당징계자가 있었읍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다고 보장할수 없는데 학생상벌에 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개정된 상벌규정을 보면 소속단과대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되고 또다시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시 소속 단과대서 심의하고 총장은 인준만 하게됩니다. 학내에서 퇴학이란 최악의 방법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앞으로 전체교수회의 방향섬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8개항 실천의지는 강고합니다. 학생과 교수간의 오해를 풀고 화해의 논리로써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가겠읍니다. 선진적인 교수회를 운영, 질높은 교수의영입과 선신적인 교과과정등의도입으로다가오는 동국1백주년의 영광을위해 매진하겠읍니다. 〈이만섭記者〉

회전무대

시기이유로 미루기만…보직개편 미봉책

제버릇 남주나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끝없는 참회에 여념이 없다는「그분들」。

잠시 조용하다 李여사의 부동산투기件으로 다시 그 즐겨하던 매스컴의 각광을 받으며 텔레비전 땡(?)뉴스의 주인공 면목유지에 기염을 토하면서도 한편으론 황홀했던「그때 그순간」을 잊지못해「그분」이 尹東柱시인의 序詩를 인용하는 대담성을 발휘하며 詩한수를 읊었다는 유비통신의 전언。

『정권교체하는 날까지 한 점 약속위반이 없기를/체육관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귀큰 아이를 증오하는 마음으로/모든 친구들을 증오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낙향길로 걸어가야겠다/오늘밤에도 머리카락이 턱에 스치운다』

새학기는 시작되는데

○…학교당국은 오는 28일자로 보직개편을 굳센 맘먹고 단행했다는데……。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원성을 높이 샀던 비서실장이 학장으로 영전되는가하면 보직사퇴키로 합의했던 학생처장에 대한 인사발표는 적당한 시기(?)가 안됐는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 아연실색。

지난 한해동안 몸으로 부딪끼며 잠못이루면서도 끝내는 조인했던 학자투 합의사항이 해가 바뀌자 나몰라라는 식으로 내팽개쳐진 듯한 인상이니 뱀띠인「어느양반」이 괜히「움메!己巳런」하고 있는것은 아닌지해서 씁쓸。

최루탄 처벌법論

○…지난9일「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최루탄 사용은「적극사용」걸로 발언이 거침없이 나오고 피해자중엔 故이한열·故이석규씨를 비롯, 무수한데 화염병에 맞아죽었다는 사람은 없는것으로봐서「살상무기」는 오히려 최루탄인듯。

「無彈無淚」「남에게 눈물흘리게하는 자는 자기눈에서 피눈물 나는것을 보게된다」는 말을보아「최루탄처벌법」부터 만드는게순서가 아닐지…。

유능한 인재 특채(?)

○…지나해 一步후퇴한 온방울 집행부가 새로운 가족을 맞아 二步전진의 발판을 구축해 앞으로 사업전개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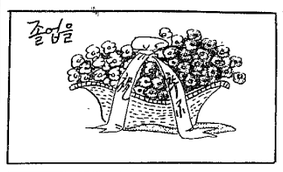
지나해 11월 집행부 전원사퇴후 총학 부장이라는 중책이 2개월의 표류끝에 지난달에 젊은 함해사(?)와 조우, 己巳年의 시작과 더불어 희망찬 걸음마를 내딛었다는 소식。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잔존했던 낡은 권위주의나 우월감에서 탈피해 학원의 민주화와 진리의 상아탑구현과 학생과 교직원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온방울의 본을 맞는것이 시급한 과제일듯。

여로니 표

오 황

<81>



민족영화 탄압

민족정서담은 미학창조로 맥이을터…

흔히 충무로 영화로 대표되어 왔던 우리 영화는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그 탄생을 맞은 이래 1945년 미국에 의해 권리이전되어 신식민지화와 분단고착화로 오늘에 이르는 수난의 현대사와 역사적 궤를 같이해왔다。즉 영화의 위대성과 파급력을 간파한 식민종주국과 이승만에서 전두환에 이르는 매판 독재정권에 의한 영화악법, 그리고 이에 편승한 매판 영화자본가의 자본논리라는 이중의 규제와 탄압하에 신음해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악법 철폐와 민족영화창조는 영화인들의 시대적 사명일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민족영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분단이라는 민족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예술이념에 기초하여 민족현실을 민중적 입장에서 형상화 해내는 영화예술」로 민족의 자주 민주통일에 함께하는 진보적 영화운동의 이념을 나타내는 가치개념이다。

애초에 민족영화는 그동안 전개된 「작은영화」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작은영화」는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 상업영화에 대항하는 8·16㎜규격의 영화매체이다。이러한 작은 영화를 매체로하는 영화써클이 많은 대학에서 86년을 기점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87년 대학영화인들은 농촌의 현실을 고발한 「파랑새」에 대한 구속, 탄압사건으로 결집된 힘의 필요성을 절감, 「대학영화연합」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던중 민족현실을 단편에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단편영화의 한계를 느낀 젊은영화인들이 지난해 6월초 공동작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오 꿈의나라」「민족영화를 위하여」등 민족영화에 대한 당국의 탄압에 대해 영화인들은 영화악법 철폐를 주장, 민족영화 창조의 위업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작품이 바로 지난달 15일부터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개봉되었다가 상영중지압력, 극장폐쇄협박등을 당했던<오, 꿈의 나라>상영시간 90분의 16㎜극영화다。

민족영화를 추구한 젊은영화인들의 첫본격작품인<오, 꿈의나라>가 상영되자 문공부는 거센탄압을 자행했다。

지난 16일<오, 꿈의나라>제작진인 홍기선씨등을 영화법위반등으로 예술극장 한마당의 유인택씨를 공연법위반혐의로 치안본부와 서대문경찰서에 각각 고발하는한편 「극장폐쇄조치」도 불사하고 있음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국은<오, 꿈의나라>탄압과 더불어 지난달 31일부터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소형독립영화제 「민족영화를 위하여」를 한독문화협정을 들어 상영저지시켰으며, 그렇게 잦았던 재방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독 광주소재의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만은 재방을 허용하지않았다。

문공부의 심한 탄압에 민족영화의 열기는 한층 더해가고 있으며, 예정보다 일찍 종영되버린<오, 꿈의나라>는 그림마당민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상영되고 있다。

<오, 꿈의나라>배급을 담당했던 영화우리마당의 한 관계자는 『서총련과 연계해 89신입생 오리엔테이션용도로 대여할 계획』이라며 『사상학습을 통한 소재주의적 경향에서 탈피, 건강한 민중성을 획득하여 민족정서와 현실에맞는 미학창조가 민족영화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향후 민족영화를 전망했다。

이제 꺽이지 않는 민족영화의 맥을 이을 두번째 광주항쟁 장편영화<황무지>를 기대해 본다。

<박영란 記者>

예술악법인 영화법과 공연법이 폐지되어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것이다。사진은 당국의 탄압으로 미리종영된<오, 꿈의나라>의 한장면。

社 告

만화·만평·컷기자 모집

해학과 기지(機智)로 시대의 모순을 파헤칠 뜻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대　상 : 서울·경주캠퍼스 재학생
▲모집인원 : 각○명
▲전형방법 : 부문별로 본인이 직접 그린 작품을 5편이상 제출
▲마　감 : 3월3일 (金) 까지
▲제 출 처 : 本社 문화부
※만화·만평·컷기자에게는 소정의 급료가 지급됩니다。

東大新聞社

메아리

▲작가 「살만 루시디」의 소설 「악마의 시」라는 작품으로 회교권과 서방세계사이에 정치·외교·종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등 엄청난 파문은 실로 놀랍다。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이란의 정신적 지도자인 호메이니옹은 문제의 작가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는가 하면 살인특공대가 등장하기까지 했다。지금은 작가 루시디가 사과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일개 작품이 종교문제와 연관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그영향으로 서방세계에서 일약「베스트셀러」로 올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니 말이다。▲루시디의 「악마의 시」에 나오는 마을사람들로부터 神으로 떠 받들어지는 대머리에 안경을 쓴 흉칙하게 생긴 한 인간이 마하운드가 아니라 前日王 히로히토(裕仁)가 아닌가싶다。

「악마의 죽음」

이 미어질 노릇이다。비록 그들이 악마의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받았다지만 악마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그다지도 애석하단 말인가。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일본의 국내에서 조차 전범자의 국장을 반대하고 각국 대사관에 장례사절 파견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는가하면 악마의 신으로 군림했던 天皇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대두되는 때가 아닌가。▲하물며 일본에서 조차 이러 할진대 피해당사자였던 우리가 애도를 표명하고 애석하게 생각해야 하겠는가。이는 우리의 민족적인 자존심에 결릴문제이다。「자주독립」을외치고 저들에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던 선열들을 생각하고 악마의 하수인들로 부터 억압받았던 우리민족을 생각하면 축하성명을 발표해도 시원찮을 노릇이다。『악마의 시대가 去하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요』라고。<煥>

정년퇴임교수 인터뷰

"學·術·道 어우러진 醫 실천"

金鍾鬲 교수

『의학에 몸담은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전념해 온 길일뿐』이라며 담담한 한마디로소감을 밝히는 金鍾鬲교수。

지난 87년 9월 교수로 발령된지 얼마 안돼 초대 의과대 학장겸 부속병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15여개월의 재직기간이었지만 떠나는 것이 몹시 아쉽다며 그간 깊은정을 가진 동국인이 되었음을 드러낸다。

단지 초창기로서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재연도 잊지 않는다。

평소 학생들과의 시각차를 일소하고 학문에 정진함에 있어 學, 術, 道가 하나로 어우러진 醫를 행하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철학이라는 金교수는 장남 장녀 역시 전문의로 성장해 醫家를 이루다시피한 것도 그러한 장인의식과 소명의식의 소산이란다。

『80년이 넘는 역사의 東國이 발전하자면 매너리즘들을 극복, 항상 자기혁신을 가져와야하고 특히 경쟁校가 없는 경주는 혁신의식이 더욱 투철해야할 것 같다』는 발전론을 편 金교수는 덧붙여 『불교 건학이념인 교훈이 어김없이 실현되고 그중 慈愛를 통한 의학을 바탕으로 의대부속병원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아직 구체적인게 없다』고 잘라 말한 金교수는 연구이든 진료이든 후진양성이든 지금까지처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열정에 찬 의대학생들의 앞날에 도움수 있다면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에서 제자에 대한 노스승의 깊은 사랑이 새롭다。

<潤>

의대 발전위해 적극적 투자필요

단, 학교, 동료교수들의 깊은 성원과 이해가 큰힘이 되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東國의대 발전의 추동력이 될것이라며 초대 의대학장으로서의 고초에 대한 질문을 일축한 金교수는 『연구·교육과 더불어 진료기능이 필요한 의과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부화합과 이해가 동국발전의 추동력 될것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회로 내딛는 첫발에 영광이 있기를 빌며 매사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文化部

노배를 하며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독촉으로 한평 반짜
삭월세방을 비워야 했다。

겨우 길하나 건너는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며칠을 벼르어서야 도배를 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먼지를
쓸어내고
빼닫이 속에서 녹이 슬은뻰치와 도라이버를 찾아
뿌리만 남기고 잘라간 전선을 이어야만 했다。

방모서리에 끼인 거미줄과
대가리가 큰 왕거미가 깐 알이 막 새끼도 치기
전 긴 솔로
뒤죽박죽된 친척인척의 거미줄을 걷어내었다 그리고
이사 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손때와 발자국이
찍힌 방에서
새 둥지를 틀고 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눈만 뜨면 생긴 대형 부도사건, 탈세사건, 새마을 횡령사건 등
지난 시절의 온갖 비리와 낙서가 새겨진 신문지 초벽지에다
지물포에서 사온 들풀무늬 도배지를 잘라
밀가루로 쑤어 만든 풀을 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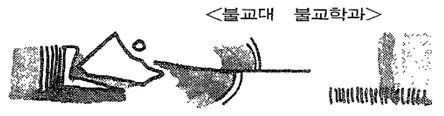
자꾸만 어긋나려는 이 세상을 끌어당기며 강력한 접착제로
식서와 푸서를 맞물려 새 벽지를 붙이면서
더 이상 도배선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벽지 안에다
단군이래 최대도적을 구속시켜야만 했다。

긴 수수비로 도배지의 등 뒤를 고루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는
벽지 속에서 돌출된 못대가리나 돌 부스러기가
도배지를 뚫고 나오지 못하게
찢어지려는 도배지를 꼭 움켜잡고 단단히 문단속을 해야 한다。

잘 붙지 않으려는 초벽지 위에다 튼튼히 도배를 해야만 한다。

고 영 섭

<불교대 불교학과>



인터뷰

○수석 졸업자○

하석모 君

지각입학끝에 졸곤 과 수석차지

『예상도 못했읍니다。공부도 별로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수석졸업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그리고 그간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본교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은 하석모(경주·법학과)君의 졸업소감이다。

구수한 사투리로 자신을 『억수로 못 생겼다』고 표현하는 하君은 이웃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다。

59년생으로 경주신라중, 대구공고를 졸업한 후 8년 동안의 직장생활 끝에 만학의 꿈을 안고 85년도에 입학하였다。

3학년 2학기를 제외한 전 학기의 과 수석을 차지해 온 비결의 물음에 『교수님들께서 나이가 많다고 봐주셨나봐요』라고 겸손한 대답을 하였다。

기초가 부족하여 학교공부가 힘들었다는 하군은 법학과 제3회 모의재판의 원고를 작성한 것과 재판장을 맡았을때가 대학생활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아직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 그는 현재 고시준비에 한창 열심이라고 한다。

대학생들의 사고방식이 개방적이어서 다소 세대격차를 느꼈다는 그는 『모든 일에 열성을 갖고 열심히 임했으면 합니다。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의 일부가 대중심리에 휩싸이는경향이 있는데, 주체성을 갖고나름대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했으면 좋겠읍니다』라고 후배에게 당부한다。

다시한번 수석졸업을 축하한다는 기자의 말에 쑥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수고하이소』라는 인사에 인간의 넉넉함이 느껴졌다。

<貞>